

이슬람과

바로알기

이슬람 원칙, 가치, 전통에
대한 간략한 안내

**거룩하신 알라께서 그의 종(무함마드)에게 모든
인류의 경고가 되는 잣대(옳고 그름의 기준)를
내려주시었노라**

코란 (Qur'an) 25:1

이슬람 바로알기

이슬람 원칙, 가치, 전통에 대한 간략한 안내



5판: 무하람 1448년 / 2026년 6월

저작권

이슬람 정보 센터는 이슬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이 책을 출판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단, 내용을 변경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합니다.

저자 및 펴낸곳

이스라믹·인포메이션·센터
마스카트 스ultan·카부스·그랜드·모스크
오만·국

info@iicomman.com

www.iicomman.com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알라의
이름으로**

목차

제목	페이지
서문	1
1. 역사 속의 이슬람	2
2. 이슬람의 의미와 기본 원칙	8
3. 창조주 알라의 본질과 특징	19
4. 예언자 무함마드 (Muhammad) 의 일생과 됨됨이	21
5. 예언자의 정통성	24
6. 코란 (Qur'an) 의 역사와 계시	30
7. 코란 (Qur'an) 의 정통성	39
8. 예언자의 전통	42
9. 사후세계	44
10. 다른 종교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	49
11. 이슬람의 예수 (Jesus)	52
12. 왜 이슬람인가, 모든 종교가 옳지 않은가?	55
13. 무신론과 불가지론에 대한 경고	57
14. 이슬람 속 여성의 지위	61
15.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	62
16. 이슬람 지하드 (Jihad)	64
17. 샤리아 (Shari'ah) 샤리아	66
18. 이슬람의 분열	68
19. 이슬람의 기본 인권	70
20. 이슬람의 문화적 다양성	74
21. 왜 종교가 중요한가?	78
22. 어떻게 이슬람교도(무슬림)가 되는가?	80
용어	82
미주	84
참고문헌	88

서문

알라(Allah)는 그를 섬기고 그의 계명에 따라 사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이를 위해 알라(Allah)는 그의 뜻에 순종하는 자(아랍어로 이슬람의 뜻)들을 위하여 경전을 만들고 사도를 임명하여 인류를 이슬람으로 인도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종교를 알 권리가 있으며 믿음에 관한 현명한 선택을 내릴 기회가 있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일찍부터 이슬람은 비판론자들에 의해 왜곡되어 왔고 결과적으로 항상 오해를 받아왔기에 영적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오늘날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 이슬람으로 제시되는 많은 것들이 비록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편견과 오도로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 사실, 이슬람만큼 서구 작가들이 부정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많이 써 내려간 종교는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10여 년 동안 이슬람에 대한 글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아닌 진실과 상호이해에 기초한 이슬람에 대한 진정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이 위대한 종교를 조명하고 왜곡과 오해를 제거하여 모든 인류에게 이슬람을 적절하고 진실된 시각으로 보고 개인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믿음은 종종 문화에 의해 결정되며, 진리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구별할 수 있는 길은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역사 속의 이슬람

이슬람은 종교이자 문명이며, 모든 대륙에 걸쳐 광대한 지역에서 14세기 이상 인류 역사와 지리적으로 존재한 역사적 현실이다. 특히 서구 문명에서 특정 측면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수많은 지구촌 인간의 삶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변화시켜온 영적 실재이다. 오늘날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이 다른 약 20억 명의 인구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 현재 이슬람교는 중요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서구, 아시아, 아프리카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이슬람에 대한 지식은 현대 인류와 서양의 지적 문화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종교의 현실과 그 영성에 끌리는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

움마(Ummah)라는 개념의 의미와 이슬람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즉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의 총체성을 파악하지 않고는 이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이슬람의 움마(Ummah)는 성스러운 하나님과 신성한 주권에 대한 코란(Qur'an)의 말씀,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 (그분에게 알라(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¹)의 계시, 샤리아(Shari'ah)라는 이슬람 율법의 수용에 대한 유대감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일부 이슬람 사회를 뒤흔든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강한 형제애를 통해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더 이상 정치적으로 단합되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신앙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슬람 움마(Ummah)에 속하지 않는 민족이나 인종 집단은 거의 없는데, 이는 처음부터 이슬람은 인류 전체를 위한 종교로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분열, 종족주의에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움마(Ummah)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북미와 남미, 호주 등 전 대륙의 모든 인종과 민족 집단을 아우른다.

이슬람 역사는 이슬람 사회와 제도, 문명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슬람 바로알기

메카 (Makkah) 에서 메디나 (Madinah)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이주한 시기는 메디나 (Madinah)에서 최초의 이슬람 사회 성립을 기점으로, 무함마드의 죽음과 네 명의 정통 칼리프 (caliphs)(서기 622~661년) 통치기까지 이슬람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기간이다. 이는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이 후기 역사에서 신의 영도를 찾아온 이상주의 시대이다.

네 명의 정통 칼리프 (caliph)를 따른 통치자들은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광대한 제국을 세웠지만, 정통 칼리프 (caliph)의 세습 왕조로 변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최초의 이슬람 왕조인 우마이야 (Umayyads)는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스페인과 프랑스에 이르기까지 통치하였고, 통신, 행정, 법, 군사 제도를 확립했는데, 그 중 상당 부분이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이 시기 행정, 상업, 농업, 우편 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개혁이 이뤄졌다. 우마이야 (Umayyad) 왕조는 아랍어를 이슬람 세계의 언어로 만든 기념비적 결정을 내렸으며,



스페인 그라나다 알람브라 궁전

금화와 은화를 제조하여 단일 통화를 도입하는 등 절정기를 누렸다. 다마스쿠스의 우마이야(Umayyad) 모스크와 예루살렘의 바위사원은 우마이야(Umayyad) 왕조의 중요한 건축물 중 하나이다.

서기 750년 우마이야(Umayyad) 왕조가 아바스(Abbasids) 왕조에 의해 무너지면서 이슬람의 중심이 새로운 도시 바그다드로 이동했다. 아바스(Abbasids) 왕조는 이슬람 문명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이다. 아바스(Abbasids) 왕조 통치자들은 예술, 과학, 철학의 위대한 후원자였다. 이슬람 과학과 철학이 모두 번성했던 것이 이때이다. 아바스(Abbasids) 왕조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필적하는 지적 문화를 창조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그다드의 중앙집권적 권위는 이슬람 세계의 새로운 독립 세력과 학문의 중심지로 이동했고, 학문과 연구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며 발전했다. 전 세계에서 온 지식인들은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부하라, 카이로, 페즈, 코르도바, 시라즈 등과 같은 중심지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알 킨디(al-Kindy), 알 파라비(al-Farabi), 이븐 나(Ibn Sina)시, 이븐 러시드(Ibn Rushd), 이븐 알 하이담(Ibn al-Haytham), 알 비루니(al-Biruni), 알 카와리즈미(al-Khawarizmi) 등과 같은 철학자들이 새로운 사상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철학, 천문학, 의학, 수학, 과학 분야의 행사가 대부분 이슬람 세계에서 이뤄졌고 당시 세계 학술어인 아랍어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우마이야(Umayyad) 왕조에서 시작한 이슬람 율법샤리아(Shari'ah)의 성문화가 마무리되고 오늘날 존재하는 전통 학파(수니파(Sunni), 시아파(Shia), 이바디파(Ibadhi))가 성립됐으며, 부하리(Bukhari)와 이슬람교도(무슬림) 등에 의해 최종 정본인 하디스(Hadith) 진훈집이 편찬되었다. 9~10세기 이슬람 왕조의 바그다드와 코르도바는 세계의 경이로움이 가득한 곳으로 가장 문명화된 도시이자 지적, 문화적 정신의 중심지였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통치자들은 자문관, 외과의사, 건축가, 심지어 음악가와

의상 제작자가 필요할 때, 바그다드나 코르도바로 연락했다. 이슬람 도시들은 집과 궁을 돌로 지었고, 포장된 거리에 불이 들어오고, 수도 시설을 갖췄으며, 대학과 도서관, 병원과 약국, 미술관, 공중목욕탕이 있었다. 중세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이미 개인 위생을 위해 비누, 화장품, 향수와 같은 진보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바스(Abbasids) 왕조 시대는 과학과 혁신, 높은 생활 수준, 현대 사회라는 측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이슬람 “황금기”였다.

하지만 점차 아바스(Abbasids) 왕조는 힘을 잃어 가면서 1517년 칼리프(caliph) 정권을 장악한 오스만(Ottoman) 왕조에 의해 패망했다. 오스만(Ottoman) 제국은 옛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오늘날 이스탄불)에서 통치한 술탄 숄레이만(Sultan Suleiman) 대제의 재위 시절 때 전성기를 맞았다. 그가 죽을 때까지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동유럽의 많은 지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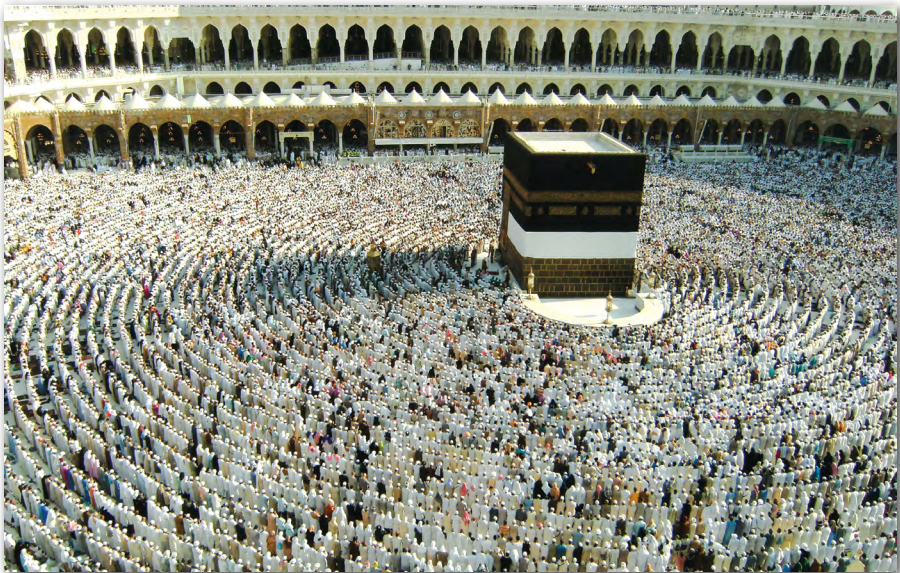


터키 이스탄불 쉴레마니예 모스크 내부

통치하에 있었다. 오스만 (Ottoman) 술탄 (Sultan)은 그 시대 다른 어떤 국가에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관료적 능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통치했다. 술탄 (Sultan)들은 제국의 다른 이민족에게 하나의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으며 관용적이고 다원적이었다. 오스만 (Ottoman) 왕조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틀을 제공했으며, 각 민족은 고유한 신념, 문화와 법, 지배자에 대한 충성을 지켰다. 오스만 (Ottoman) 통치자들은 6세기 동안 성공적으로 제국을 이끌었다. 17세기와 20세기 비이슬람 상인과 선교사, 군인, 식민지 관리자들이 이슬람 땅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유럽의 식민지가 팽창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는 모두 식민지 제국을 발전시켰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슬람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다. 이러한 외세의 지배는 많은 이슬람교도 (무슬림)들에게 굴욕적일 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배자들이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과 법, 정부기관을 서구식으로 대체하면서 이슬람 사회의 근간을 위협했다. 유럽의 기독교적 영향과 세속주의, 유물론적 문화 가치가 팽배했고 이슬람 영토의 종교 정신을 훼손했다. 20세기 초 제 1차 세계대전 후 패배하고 멸망할 때까지 오스만 (Ottoman) 제국은 면면히 권력을 행사했다. 오스만 (Ottoman) 제국의 붕괴 후 서구식 세속적 모델을 바탕으로 현재의 터키 공화국이 수립되었고 오스만 (Ottoman) 연방의 다른 국가들은 독립을 쟁취했다.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현재 이슬람의 전통적 관점에 대한 모든 공격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전통을 지키며 이 세계를 살고 있다. 오늘날 이슬람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의 역사가 모두 같은 궤적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16세기 개혁운동으로 개신교가 나왔다. 유대교 역시 개혁파와 보수파를 경험했다. 이슬람은 아직 겪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와 같은 종류의 변혁을 겪을 것 같지는 않다. 이슬람교도(무슬림)의

종교적 생활과 사상은 대부분 정통과 전통의 틀 안에 남아 있다. 이슬람 사회의 특정 부문과 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더니즘과 소위 원리주의는 전통적인 이슬람 생활을 약화시켰지만, 예언자 시대와 4대 정통 칼리프 (caliph) 시대에 탄생한 전통적 세계관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 또는 법학적 세계관은 아직 없었다. 대다수의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의식을 행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리듬은 전통적으로 숙지된 이슬람과 관련된 행사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특히, 코란 (Qur'an), 하디스 (Hadith), 샤리아 (Shari'ah) 등의 전통적인 이슬람 과학은 전통 이슬람 교육과 법적 체계의 황폐화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되고 있다.



메카의 카바(Ka'bah)에 유일신 하나님을 위한 최초의 성전이 있었다. (술탄 Qur'an 3:96)

이슬람의 의미와 기본 원칙

이슬람교는 유일하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마지막 사도 무함마드 (Muhammad)(그분에게 알라(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에게 계시한 알라(Allah)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복종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슬람은 알라(Allah)의 뜻에 기꺼이 성실하고 평화롭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알라(Allah)의 뜻에 대한 복종은 창조주를 향한 경건함, 겸허함, 헌신을 내포하며, 이는 바로 신과 자기 자신, 다른 피조물, 환경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완벽한 조건이다. 이슬람교를 추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믿고 복종하는 사람을 **이슬람교도(무슬림)**라고 한다.

이슬람교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다. 이는 아담 (Adam)에서부터 노아 (Noah), 아브라함 (Abraham), 이스마엘 (Ismael), 이삭 (Isaac), 모세 (Moses), 예수 (Jesus),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함마드 (Muhammad) (그분에게 알라(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에 이르기까지 알라(Allah)의 모든 예언자들에게 계신된 것과 같은 종교이다. 이 예언자들은 모두 알라 (Allah)만 숭배하고 오직 그의 뜻에만 복종했기에 모두 이슬람교도(무슬림)이다.²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나온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이슬람교도(무슬림)이다. 이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코란 (Qur'an, 3:19)에서 천명한 ‘이슬람’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의미와 맥락을 같이한다.

신의 관점에서 종교는 그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슬람)

이슬람은 **6대 강령의 믿음**(이만 Imman)과 **5대 강령의 종교**(이슬람 Islam)가 기본이다. 믿음은 신념에 의해 믿는 것이고, 종교는 믿음의 실천적 확인이다. 이슬람은 믿음을 종교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믿음은 창조자와 그의 신성, 주권, 복종의 권리(아랍어로 울르히야 (Uluhiyya), 루부비야 (Rububiyyah), 우부디아 (Ubudiyyah))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대 강령의 믿음

믿음에 대한 강령은 코란 (Qur'an)에서 다양한 구절로 나온다.³ 예를 들어, 첫 번째 강령에 대해 알라(Allah)는 다음과 같이 112장에서 말한다.



제1강령:

알라(Allah) 외에는 숭배할 만한 신이 없다는 믿음. 그는 유일무이한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 속성은 고유하고 분리할 수 없으며 동반자들을 알라(Allah)와 연결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 원리를 일신교(아랍어로 앳 따위드 At-Tawheed)라고 한다.

본 믿음 강령의 의미: (a) 창조주의 단일성은 창조에 있어서 목적의 통일과 그에 따른 종교의 단결을 의미하며, 이것이 삶의 방식의 유일성을 나타낸다. 인생에서 이러한 목적 단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류는 정신적 절망과 불협화음에 빠져 있다. (b) 하나님의 속성을 다른 존재에게 돌리는 것은 미신을 만들어 두려움과 부패와 착취를 이끈다.

제2강령:

알라 (Allah)의 정신적 종이자 대리자인 천사에 대한 믿음. 인간과 달리 천사는 영적 존재이고 육체가 없다. 천사의 본성은 영원히 알라 (Allah)를 숭배하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본 믿음 강령의 의미: 인간의 신체적 인식을 벗어난 것에 대한 믿음은 믿음의 요구조건 중 하나이다. 이 장은 인간의 신체적 인식을 초월하여 영적 이해와 통찰의 길을 열어주는 창조를 실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더욱 강화한다.

제3강령:

알라 (Allah)의 사도들에게 계시한 모든 성서 또는 경전에 대한 믿음. 예를 들어, 다윗 (David)의 계시서 시편(아랍어 자부르 Zabur), 모세 (Moses)의 계시서 토라 (Torah)[아랍어로 앓 따우랏 (At-Taurat)], 예수(Jesus)의 계시서 복음 또는 복음서[아랍어로 알 인질 (Al-Injeel)], 무함마드 (Muhammad)(그분에게 알라 (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계시서 코란 (Qur'an)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믿음 강령의 의미: 모든 경전은 같은 조물주로부터 나온 믿음과 윤리에 대한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적인 원리이다. 한 경전을 받아들이고 다른 경전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 될 것이다. 창조주가 인류에게 서로 다르고 모순된 말씀을 하신다는 것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코란 (Qur'an)은 이전의 경전을 확인하고, 인류에 대한 신의 말씀을 완성하며, 오늘날 이전 신도들의 말씀으로 추정되는 것에 인간이 행한 변화를 바로잡는다.

제4강령:

아담 (Adam)부터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 (Muhammad)(그분에게 알라(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에 이르기까지 알라(Allah)의 모든 사도에 대한 믿음.

본 믿음 강령의 의미: 이는 모든 사도들이 같은 창조주로부터 왔고 똑같은 기본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논리적인 원칙이기도 하다. 한 명의 사도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도를 거절하는 것은 모순일 뿐만 아니라 신의 종교에 분열을 일으킬 것이다.

제5강령:

심판의 날에 대한 믿음. 천사와 달리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다. 사람은 알라(Allah)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거역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알라(Allah)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이 삶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하고 알라(Allah)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알라(Allah)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이다.

본 믿음 강령의 의미: 이 장은 신에 대한 책임과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의무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정의와 영원한 만족에 대한 우리의 갈망과 희망은 심판의 날에 진실되고 절대적인 신의 정의가 확립될 때 성취될 것이다.

제6강령:

신적 결정과 운명에 대한 믿음: 창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선과 악 또는 무관심)은 알라(Allah)가 그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에서 미리 정한 법칙과 조치(아랍어로 카다 와 카달 Qadha wa Qadar)에 따라 일어난다. 피조물에서 이 법칙들(물리적 법칙과 영적 법칙 모두)과 적절한 조치(즉 정도와 범위)에 비취 알라(Allah)의 지배와 통제 밖에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알라(Allah)은 그의 법칙과 조치를 통해 절대적 지배력을 지녔으며, 모든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 지식을 지녔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 코란 (Qur'an, 6:59)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열쇠가 그에게 있다. 그를 제외하고 아무도 그것들을 알지 못한다. 그는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아도 그는 그것을 알고 있다. 어두운 땅 속의 씨앗 한 알도 새롭거나 마르거나 한 것 없이 모두 명백하게 쓰여 있다.

알라 (Allah)의 절대적 지식은 인간 삶의 흐름은 물론 썰물과 파도도 포함한다. 하지만 알라(Allah)는 인간의 행동을 미리 안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행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이는 천문학자들이 그들의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몇 년 전에 일식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과 같다. 일식은 천문학자들의 지식이나 예측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알라(Allah)는 무한한 지식(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음)을 소유하여 인간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인간의 행동을 기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위의 원칙은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선택한 방법과 수단이 항상 (a) 알라 (Allah)의 법칙을 따르고 (b)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결과가 알라 (Allah)의 조치를 따르고 (c) 알라(Allah)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먼저 알고 있으나, 우리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⁴ 더욱이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과 행동에 대한 대리자이나 선택을 수행할 창조적 권능이 없다.

알라 (Allah)께서 너희의 존재와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창조했노라. (코란 Qur'an 37:96)

이는 인간이 지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알라(Allah)는 인간의 행동과 관련된 특정 행동에서 ‘인간의 의지’를 ‘신의 뜻’ 또는 신의 인도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즉 인간은 그러한 행동을 바라고, 알라(Allah)는 그 행동을 이행한다(알라(Allah)

는 이를 행하기로 결심할 시). 이렇게 알라(Allah)가 지닌 ‘신의 뜻’ 안에서 ‘인간 의지’는 작동한다. 선과 악의 창조적인 부분은 모두 알라 (Allah)에게 속하지만, 악은 인간이 선택한 결과로 나온다. 악은 인간이 독자적 의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한 결과물이다. 알라 (Allah)는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너희에게 닥친 모든 악한 일은 너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코란 Qur'an 4:79)

알라 (Allah)의 관점에서 악의 창조나 악을 허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 아니라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다. 신은 악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이 악을 선택한다.

본 믿음 강령의 의미: 창조주 알라 (Allah)의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 통제와 통치에 대한 신념은 피조물에 관한 그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한다. 피조물에 대한 알라 (Allah)의 자비와 배려를 통해 이 장은 희망과 내면의 평화를 심어주고 신자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한다.



믿음에 대한 이 여섯 가지 원칙은 인간의 지성을 영적 이해와 통찰에 이르게 한다. 특히, 이들 원칙은 완전한 의미에서 “믿음”을 정의한다. 한 선지자를 믿고 다른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 원칙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것으로서 이는 “불신자”를 낳는다.



기도문

알라(Allah)는 가장 위대하십니다, 알라
(Allah)는 가장 위대하십니다

알라(Allah)는 가장 위대하십니다, 알라
(Allah)는 가장 위대하십니다

알라 (Allah)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알라 (Allah)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무함마드(Muhammad)는 알라(Allah)
의 예언자입니다

무함마드(Muhammad)는 알라(Allah)
의 예언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루어라, 이루어라

알라(Allah)는 가장 위대하십니다, 알라
(Allah)는 가장 위대하십니다

알라 (Allah) 이외에는 경배 받을 존재가
없습니다

기도문은 영원한 성공으로 초대한다. 알라
(Allah) 외에는 숭배할 만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Muhammad)(그분에게
알라 (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알라
(Allah)의 사도라는 것을 인류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준다.

종교에 대한 5대 강령

종교에 대한 강령은 코란 (Qur'an)에서 다양한 구절로 나온다.⁵ 예를 들어, 첫 번째 강령에 대해 알라(Allah)는 다음과 같이 코란 (Qur'an) 49:15장에서 말한다.



제1강령:

알라 (Allah) 이외에 숭배할 만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 (Muhammad)는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진실된 선언. 이 선언은 창조주의 유일성(일신교)과 선지자 무함마드(Muhammad) (그분에게 알라 (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사도임을 확고하게 한다. 이는 아랍어로 샤하다(shahadah)라고 하며, 선언된 진리를 증언하고 지키며 확립한다는 뜻이다.

믿음을 선언한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실질적 확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강령을 실천에 옮길 의무가 있다.

제2강령:

하루 5회, 즉 새벽, 한낮, 늦은 오후, 해가 진 후,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다(아랍어로 살라 Salah). 기도란 중재자가 없이 알라(Allah)와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서 알라 (Allah)에 대한 찬양과 찬송, 간청을 포함한다.

본 종교 강령의 의미: 알라(Allah)는 기도를 알라(Allah)에 대한 불복종을 기억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코란 Qur'an 20:14 및 29:45). 따라서,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신에 대한 의식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도록 돕는다(아랍어로 타크와 Taqwa⁶).

제3강령: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한 자선(아랍어로 자카 Zakah). 이슬람교도(무슬림)는 모아놓은 돈이나 금과 은 등 전년에 사용하지 않은 개인 자산의 약 2.5%를 기부해야 한다. 자선금 기부는 농산물, 시장 주식 등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본 종교 강령의 의미: 사회의 빈곤, 시기, 고통을 타파하고자 자카(Zakah)라는 의례를 통해 사회의 부를 공유해야 한다. 'Zakah'라는 단어는 순화를 의미하며, 이렇게 알라 (Allah)의 은혜로 우리의 재산과 영혼이 정화된다.

제4강령:

이슬람 음력으로 아홉번째 달인 성월 라마단(Ramadhan)에는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한다. 낮 동안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식사, 음주, 성행위를 금해야 하고 험담, 거짓 증언 등 이슬람교에서 금지한 모든 것을 삼가야 한다.

본 종교 강령의 의미: 금식은 의지, 인내, 궁극적으로 믿음과 알라 (Allah)의 존재에 대한 의식(*taqwa*)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하루에 한끼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보다 불후한 이들을 잊지 않게 도와준다.

제5강령:

메카 순례(아랍어로 하지 Hajj). 금전적 여유가 있고 신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일생에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



메카의 아브라함 성소(Maqam Ibrahim), 카바를 짓는 동안 아브라함(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이 서 있던 곳

본 종교 강령의 의미: 성지 순례는 전 세계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의 연례 행사로서 인류의 통합과 종교의 단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은 하나이고, 인류도 하나이고, 그들의 종교도 하나이다. 성지 순례는 알라 (Allah)에 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물론 예언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그분들에게 알라 (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을 기리고 그 희생을 기념하는 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교 원칙은 이슬람교도(무슬림)의 마음과 정신을 육체적 욕구와 물질주의로부터 영적 깨달음과 발달로 이끈다. 즉, 우리의 존재를 물질 차원에서 영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주고, 창조주 및 창조주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인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한다.



오만 무스카트에 있는 술탄 카부스 대모스크의 미나레트. 과거에는 첨탑과 같이 높은 장소에서 기도 시간을 알렸다. 오늘날 미나레트는 모스크의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남아 있다.

창조주 알라의 본질과 특징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의 **개인** 이름은 “알라(Allah)”이다. 이는 고유명으로 성별이 없고 복수형이나 파생형도 없다. 알라(Allah)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알라 (Allah)에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다. 알라(Allah)는 모사하거나 재연할 수 없고 동등하거나 대등하지 않다. 알라 (Allah) 유일무이하기에 독생자 (*Al-Wahid*)라고 부른다. 알라(Allah)는 유일신이다. 즉,

1. 알라(Allah)는 (a) 독립적 존재로 초월성과 자립성을 지니며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는다, (b) 알라 (Allah)의 본성과 절대 권능을 포괄하는 비등성을 지니며 피조물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지닌 분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이러한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 이 모든 특징은 고유하며 다른 존재와 공유하지 않는다.
2. 알라 (Allah)에게는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궁핍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등 이러한 특징에서 유래한 많은 예칭이 있다.
3. 알라 (Allah)의 신성과 지위, 순종의 권리(아랍어로 울르히야 Uluhiyyah, 루부비야 Rububiyyah, 우부디야 Ubudiyyah))는 다른 존재와 나눠 갖지 않는다.
4. 이러한 신의 영광으로 알라 (Allah)라는 이름은 우리의 절대 복종과 사랑의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의 절대 보호자이자 피난처가 되시는 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알라 (Allah)라는 이름은 진정한 **유일신**임을 정의한다. 특히, 이러한 심오한 의미로 인해 ‘신’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지만, 이 두 단어는 이슬람 문헌에서 종종 동일하게 사용된다.

알라(Allah)는 우주의 기원자이자 지속자이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알라(Allah)를 믿고 따르고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그 이름을 부정하거나 다른 존재(아랍어로 쉬리크 shirk)와 연관시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가장 무거운 죄이다. 알라(Allah)는 다음과 같이 코란 Qur'an(4:48)에서 말한다.

알라 (Allah)께서는 딴 것과 더불어 놓이는 것을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이외의 것은 마음에 합당하시면 용서하실 것이다. 딴 것을 알라(Allah)와 같은 위치에 놓는 자는 누구든지 큰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코르도바 대성당과 메츠키타 대성당으로 알려진 코르도바 모스크 성당은 코르도바 교구의 성당이다. 이 건축물은 무어 건축의 가장 뛰어난 기념물 중 하나로 여겨진다.

예언자 무함마드 (Muhammad)의 일생과 됨됨이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 (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 *pbuh*)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자이다. 무함마드 전에 하나님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그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pbu*)와 같은 많은 예언자를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은 각각 특정한 국가와 시대를 위해 보내졌다. 이슬람교도(무슬림)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자를 믿고 공경하며 존중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가장 많이 존경하는 것은 무함마드가 전 인류에게 보내진 마지막 예언자로서 불멸의 생명력을 지닌 범세계적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⁷

혈통

예언자 무함마드는 아랍인으로 아브라함(*pbu*)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메카의 유력한 쿠라이시(Quraysh) 부족 중 존경 받는 하심가(Bani Hashim)가 그의 집안이다.

출생

예언자 무함마드(*pbuh*)는 예수(*pbu*) 탄생 후 약 6세기가 지난 서기 570년에 출생했다. 부모는 둘 다 귀족 출신이고 친척이었다. 아버지는 무라의 아들, 킬라브의 아들, 쿠세이의 아들, 압드 알 마나프의 아들, 하심의 아들인 압달라이고, 어머니는 무라의 아들, 킬라브의 아들, 스하라의 아들, 압드 알 마나프의 아들, 와하브의 딸인 아미나이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고, 어머니는 무함마드가 겨우 6살이었을 때 죽었다. 할아버지인 압드 알 무탈리브가 무함마드를 맡았는데, 2년 후 압드 알 무탈리브가 세상을 떠나고 하심가 수장이 된 삼촌 아부 탈리브가 무함마드를 길렀다.

성격과 됴됨이

예언자가 되기 전에 무함마드(*pbuh*)는 도덕심이 강하고 착하고 순한 청년으로 자랐다. 글을 읽지 못했으나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도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오히려 메카 외곽의 동굴로 들어가 며칠 동안 명상을 하며 창조주와 피조물에 대해 생각했다.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무함마드는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아랍어로 *As-Saadiqul-Ameen*)’로 알려진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다. 많은 이들이 사업과 보관을 위해 무함마드에게 재산을 맡기곤 했다.

예언자 무함마드(*pbuh*)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고 사람들과 함께 이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실천했다.

계시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예언자 무함마드(*pbuh*)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

읽어라, 창조주이신 당신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은 응혈로부터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읽어라, **당신의 주님은 한없이 마음 넓으신분, 붓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에게 미지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코란 Qur’an 96:1-5).**

이 계시는 무함마드(*pbuh*)가 서기 610년에 받은 것으로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다.

이 첫 번째 계시는 지식과 이성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의 근원이자 믿음 그 자체의 기본이 됨을 강조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계시는 무함마드에게 23년간 계속되었다. 처음 13년 동안은 메카에서 말씀을 전했으나 무함마드와 제자들은 극심한 거부와 박해를 직면하게 된다. 박해가 계속되고 더 고조되어 무함마드는 서기 622년 메카 북쪽에서 약 400km 떨어진 메디나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메디나인들은 무함마드와 제자들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했다. 무함마드는 그 후 10년 동안 메디나에서 알라(Allah)의 계시를 계속 받아 전하면서 이슬람 국가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죽음

서기 632년 63세에 예언자 무함마드(*pbuh*)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숨을 거뒀으며 메디나에 있는 그의 아내 아이샤(알라(Allah)께서 그녀를 흡족히 여기시길)의 저택에 봉안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대(무함마드)는 확실히 진리 위에 있다
(코란 Qur'an 27:79)



예언자의 정통성

인류 역사를 통해 알라 (Allah)의 모든 예언자들은 항상 그 신뢰성을 의심받아왔으며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pbuh*)도 마찬가지이다. 코란 (Qur'an)에 따르면 신뢰성은 예언자의 고귀한 성품과 주님께게서 받은 계시의 설득력 있는 진실성에서 나온다.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정통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다음 네 가지이다.

근거 1

4장에서 설명했듯 예언자 무함마드는 매우 청렴하고 성실했으며 사람들로 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의 별명 중 하나는 '진실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였다. 무함마드는 40세 때 예언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고귀한 인격을 지닌 사람이 중년에 갑자기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으로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모든 논리와 이치에 어긋난다.

무함마드가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고 싶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이미 메카에서 유력한 권세가인 쿠라이시 부족에 속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사실, 예언자의 사명을 시작했을 때 집안에서 이를 만류하기 위해 지도자의 지위를 제안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⁸ 이것이 바로 무함마드가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근거 2

주님의 예언자들은 그들에게 계시된 거룩한 말씀에 의해 판단된다. 예언자 무함마드의 근거는 코란 (Qur'an)이다. 7장에서 설명했듯 코란은 예언자가 쓴 것이 아니다. 이는 확실히 알라 (Allah)가 계시한 것이다. 실제로 무함마드가 코란 (Qur'an)을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코란 (Qur'an) 자체를 읽다보면 이러한 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의아함을 느끼게 된다. 즉, 앞서 언급했지만 무함마드는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학자가 아니었다. 코란 (Qur'an)은 무함마드의 정통성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신임장이며, 사실상 무함마드가 주장하는 유일한 기적이다.⁹

근거 3

예언자 무함마드는 인류 역사상 어떤 다른 운동보다도 매우 포괄적이고 빠르게 인류 문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이슬람만큼 인간의 문명과 발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종교는 없었다. 이렇게 빠르고 지속적인 인간 문명의 변혁은 사기꾼의 옹호 아래 이루어진 운동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이성과 논리를 모두 거스른다.

근거 4

예언자 무함마드(*pbuh*)는 주요 종교인 유대교, 기독교, 힌두교, 불교에서 예언되었다.

코란 (Qur'an)을 보면 예언자 무함마드(*pbuh*)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 모두에서 예언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사도로서 민중 가운데서 나온 예언자를 따르는
사람들이며 이 분의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 (코란 Qur'an 7:157)**

신명기(18:18)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세 이후 예언자 무함마드를 제외하고 이 구약성서의 구절에 맞는 예언자는 없다: **첫째**, 유대인의 조상은 아랍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삭에서, 아랍 민족은 이스마엘에서

내려왔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자손은 형제자매다. **둘째**, 무함마드는 모세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반면, 예수는 그렇지 않다: (1) 모세와 무함마드 둘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다. 예수는 어머니만 있고 아버지는 없었다. (2) 모세와 무함마드 둘 다 자연의 순리로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었다. 예수는 기적에 의해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되었다. (3) 모세와 무함마드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4) 모세와 무함마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새로운 법도와 규율을 가져왔으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다. (5) 모세와 무함마드 둘 다 자연사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따르면, 예수는 자연적 순리에 의해 이 지구를 떠난 것이 아니다. **셋째**, 코란 Qur'an(53:3-4)에서 나오듯이 예언자 무함마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직접 받거나 영감을 얻은 계시를 전한 것이다.

신약성서에서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요한복음 16:12-14)

다시 말하지만, ‘진리의 성령’이라는 구절은 무함마드가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란 이미 예수와 함께하는 성령이 아니다(누가복음 4:1 및 3:22, 요한복음 20:22, 사도행전 2:4 등). 무엇보다 이 진리의 성령은 예수를 찬양한다. 무함마드를 제외하고 예수 후에 온 어떤 예언자도 예수를 찬양하지 않는다(11장 참고). 예수 후에 온 ‘진리의 성령’이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에 깃들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스탄불 아시아 지역의 미나레트 전망

또한, 성경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사야복음 29:12, 요한복음 14:16 및 16:7, 마태복음 21:43, 사도행전 3:22에 예언되었다. 성경에 나오는 ‘위안자 성령(Comforter)’이란 그리스어 *Paracletos*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찬양 받는 자’를 뜻하는 아랍어 ‘아마드’ 또는 ‘무함마드’를 번역한 그리스어 *Perichlytos*를 오기한 것이다.¹⁰

자세한 객관적 연구를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가 불교 경전뿐 아니라 힌두교에서 예언되었음이 밝혀졌다. 베드 프라카시 우파드헤이 박사는 그의 책 ‘힌두교 경전 속 무함마드(*Muhammad in the Hindu Scriptures*)’에서 힌두교 경전에 무함마드를 언급한 구절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베다 경전을 보면 도래할 선지자에 대한 묘사가 예언자 무함마드와 일치한다. 산스크리트어로 적힌 무함마드에 대한 묘사는 다음과 같다.

1. *Narashagsa* - ‘찬양 받는 자’를 번역한 단어. 이는 예언자의 두 이름인 아마드와 무함마드를 의미한다. 특히, *Narashagsa*가 태어난 곳과 성품이 무함마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2. *Antim Rishi* -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 무함마드는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이다.

3. *Kalki Avatar* - 마지막 세대를 위해 오는 선지자. 예언자 무함마드는 전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로 오셨다.
4. *Kauram* - 이주자. 예언자 무함마드는 메디나의 이주자이다(4장 참고).
5. 아버지의 이름인 “Vaishnuvesh”는 ‘신의 종을, 어머니의 이름인 “Sumati”는 ‘평화’를 뜻하는데, 이 두 이름은 무함마드의 아버지 ‘압달라(*Abdallah*)와 어머니 ‘암나(*Amna*)’의 아랍어 뜻과 일치한다.
6. 도래할 선지자의 이름은 마마하(*Mamaha*)이다. 이는 산스크리트 단어가 아니며, 아랍어 이름. ‘무함마드(*Muhammad*)’를 산스크리트어로 적은 것처럼 보인다.

불경에서 석가모니는 미래의 부처 또는 마지막 보살이 온다고 예언했는데, 그가 바로 미륵불이다(*Carus*가 쓴 *Gospel of Buddha*, 217 쪽). 미륵불에 대한 설명을 보면 예언자 무함마드와 일치한다.

1. 예언자 무함마드는 마지막 사도이자 최후의 선지자이다.
2. 미륵은 ‘자비’를 뜻한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코란(Qur’an)(21:107)에서 전 인류에게 온 ‘자비로우신 분’으로 묘사된다.
3. 미륵불은 부처의 모든 특징을 지닐 것이다.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고 동굴에서 칩거하고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내가 있고 자식을 낳고 생계를 위해 일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자연사를 맞을 것이다. 이 모든 묘사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들어맞는다.
4. 미륵은 통치자가 될 것이다. 무함마드는 예언자일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의 통치자였다.
5. 미륵불은 이전의 부처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무함마드는 이전의 사도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코란(Qur’an)은 예언자 무함마드보다 먼저 온 예언자 25명의 이야기를 언급한다.

6. 미륵불의 스승은 이 세상에 없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글을 읽지 못했으며 스승이 없었다. 그의 모든 지식은 신의 계시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무함마드의 신뢰성은 그의 고결한 성품, 그가 전하는 말씀, 그의 행적으로부터 야기된 인간 문명의 지속적인 변화, 그리고 모든 주요 종교의 경전에서 발견된 그의 도래에 대한 예언에 있다.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스크(마스지드 알 나바위). 이 모스크는 무함마드가 서기 622년 자택과 인접한 부지에 지은 것으로 수년에 걸쳐 여러 번 확장되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스크 중 하나이며, 메카에 있는 거대한 모스크(마스지드 알 하라াম)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성스러운 모스크이다.

코란 (Qur'an)의 역사와 계시

코란(Qur'an)은 알라(Allah)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pbuh*)에게 전한 계시를 담은 경전이다. 이는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알라(Allah)가 전 인류에게 주는 마지막 계시이다. 코란(Qur'an)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말씀을 완성하고, 이전의 계시를 확인하고, 기존 경전들에 존재하는 변화와 오기를 바로잡는다.¹¹

계시

코란(Qur'an)은 23년에 걸쳐 서기 610-632년에 아랍어로 단계적으로 완성되었다. 예언자 무함마드를 점진적으로 알리며 필요할 때마다 특정 상황에서 신도들을 진보적으로 인도했다. 또한 신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효과적으로 동화되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록과 보존

무함마드(*pbuh*)는 계시를 받으면 그의 지도와 감독 하에 서기관에게 이를 기록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무함마드는 많은 제자들은 물론, 남녀 모두와 함께 계시를 외웠다. 이렇게 해서 코란(Qur'an)은 무함마드 생전에 남녀 신도들에 의해 기록되고 암송되었다. 코란(Qur'an)을 암송하는 습관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사를 보면 코란(Qur'an) 전체를 원문 그대로 외운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오늘날 코란(Qur'an) 전체를 외우는 이슬람교도(무슬림)는 2,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코란(Qur'an)의 일부를 외우는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내용과 주제

코란(Qur'an)은 114장으로 이뤄졌는데, 각 장의 구절 수는 3절(103장, 108장)에서 286절(2장)까지 다양하다. 코란(Qur'an)은 인도와 경고, 좋은 말씀은 물론 과거의 국가와 예언자들의 일화도 담았다. 일반적으로 코란은 다음과 같이 4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알라 (Allah)의 본질과 속성을 알려준다. 예를 들어, 앞의 제2장에서 본 코란 112장은 알라 (Allah)의 유일성(타위드 Tawheed) 및 다른 존재와 **공유할 수 없는** 고유성을 이야기한다. 알라 (Allah)의 속성을 묘사하는 구절로 다음과 같은 ‘권좌의 절(아랍어로 아야툴 쿠루시 Ayatul Kursi)도 있다.



알라 (Allah) 외에 신은 없고 그 분은 살아계신 분 영원한 분이시다. 졸림도 잠도 그 분을 붙잡을 수는 없다, 하늘에 있는 것, 땅위에 있는 것, 모든 것이 그 분에게 속한다. 어느 누가 그 분의 허락없이 그 분에게 중재를 할 수 있겠느냐? 그 분은 사람들 앞에 있는 것도 사람들 뒤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 인간은 그 분 지혜의 일부분이라도 그 분 마음이 내키시지 않으면 엿보아 알 수 없다. 그 옥좌는 하늘과 땅을 덮고 또 그 분은 이 두 가지를 유지하는 데도 지치지 않으신다. 참으로 그 분은 숭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코란 Qur'an 2:255)

둘째, 알라(Allah)와 우리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설명한다. 왜 알라(Allah)가 우리를 창조했으며 알라(Allah)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코란 Qur'an 51:56에서 알라(Allah)는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내가 진이나 인간을 만든 것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의 명령에 따라 산다는 의미이다. 또 코란은 천사, 진, 동물계, 물질계 등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즉 인간과 이러한 존재들 사이의 관련성과 상호작용을 밝힌다.¹²

셋째, 법과 지침의 형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도덕과 좋은 생활의 기준을 정한다. 우리가 어떻게 알라(Allah)를 숭배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준다.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행복을, 거부하는 자에게 영원한 고통을 약속한다.¹³

마지막으로, 코란 (Qur'an)은 모든 나라가 예언자를 통해 안내를 받아왔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코란 10:47에서 알라(Allah)가 말하시길,

어느 민족이든 사도를 보내게끔 되어 있다. 일단 사도가 오셨을 때에는 그들은 부당하게 취급되는 일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는다.

따라서, 인류에 대한 교훈으로 코란(Qur'an)은 알라(Allah)가 과거 다른 나라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예언자 노아의 투쟁과 대홍수를 말하며, 예언자 모세의 고난과 파라오와의 일화를 알려준다. 그리고 예언자 요셉의 일생은 “모든 이야기 중 최고의 이야기”이다. 모두 합쳐서 코란(Qur'an)은 알라(Allah)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인류에게 보낸 수천 명의 예언자 중 25명의 이야기를 들려준다.¹⁴



코란(Qur'an) 낭송은 이슬람 예배 의식 중 하나이다. 따라서 오늘날 코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다.

코란(Qur'an)과 현대 과학의 부합성

코란(Qur'an)은 14세기 전에 탄생했다. 하지만 우리는 현대 과학이 최근에 발견한 많은 과학적 사실을 코란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천문학, 지질학, 물리학, 생물학, 식물학, 동물학 등 자연 과학의 다양한 분야가 해당한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천지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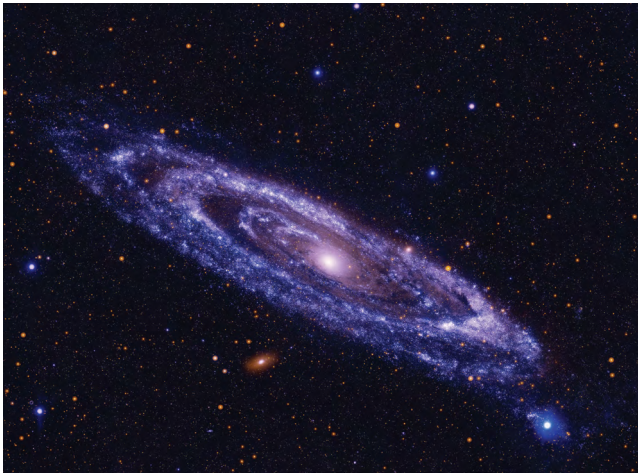
코란(Qur'an)(21:30)에서 알라(Allah) 말하시길,

신앙이 없는 자는 모르는 것인가, 하늘과 땅은 서로 맞붙어 있던 것이었으나 우리가 이것을 잘라 떼어놓고 또 물을 가지고 모든 생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그래도 믿지 못하느냐?

또한 51장 47절에서 알라(Allah)가 말하시길,

우리는 하늘을 위력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광대하게 퍼지는 자이다.

이 구절은 우주가 하나의 기체 단위에서 시작해 폭발을 통해 은하계를 형성했다는 현대 과학 지식과 일치한다. 이것은 바로 빅뱅 이론이다. 또한, 현대 과학은 첫 번째 폭발 후 우주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안드로메다 은하, 알라(Allah)가 창조하신 수십억 개 은하 중 하나. 서기 964년 페르시아 천문학자 압드 알 라만 알 수피(Abd al-Rahman al-Sufi)가 발견했다.

태아의 성장

배아기 태아의 성장은 다음과 같이 코란(Qur'an)에 여러 번 나온다.

우리는 정선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다음에 그것을 한 방울로 하여 견고한 용기에다 놓고, 그 한 방울로부터 응혈로 만들고, 그 응혈로써 살붙이를 만들었고 그 살붙이로부터 뼈를 만들었으며, 이렇게 하요 새로운 산 창조물을 만들었다. 가장 탁월한 창조자이신 알라(Allah)를 공경할지어다(코란 23: 12-14).

이 구절은 태아의 발달을 그 시작부터 정확하고 생생하게 아랍어로 기술하고 있다. 처음 수정란은 피가 응고된 응혈(알라과, *alaqah*)로 발전한 후 응혈 덩어리(무드그하, *mudghah*)가 된다. 그런 다음 덩어리 속에 뼈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살이 뼈 주위에 붙게 된다. 코란(Qur'an)은 이렇게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여기에 나온 두 개 아랍어 ‘알라과’와 ‘무드그하’는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응혈이라는 뜻 외에도 알라과는 ‘딱 달라붙는 것’, ‘거머리 같은 물질’을 의미한다. 초기 단계에서 배아를 검사하면 배아가 자궁벽에 달라붙어 있고 똥똥 떠다니지 않는다. 배아는 마치 거머리처럼 보인다. 거머리는 동물의 피부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들이는 생물이다. 태아도 태반에 붙어 어머니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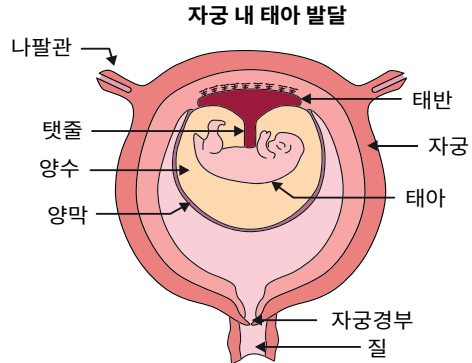
이 알라과는 무드그하로 발전하는데, 무드그하는 ‘씹은 듯한 살덩어리’를 뜻한다. 알라과 후 단계에서 태아를 관찰하면, 이빨 자국이 있는 씹은 껌처럼 보인다.

이렇게 7세기 코란(Qur'an)에 태아의 발달 과정이 놀랄 만큼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과학자들은 19세기 영상장치가 발명된 후에야 이러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란(Qur'an)에 언급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태아가 어둠 속에서 세 겹으로 보호된다는 것이다. 코란 구절 39:6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길,

또한 너희들을 너희들 어머니의 태내 3중의 암흑 밑에서 차례차례 창조하셨다.

현대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제 태아가 첫번째는 어머니의 복벽, 두번째는 자궁벽, 세번째는 암니오콘막으로 보호됨을 알고 있다. 바로 3개의 막인데, 코란(Qur'an)은 이렇게 다시 한 번 정확성을 입증하였다.



왼쪽 사진은 껌처럼 생긴 “무드가” 단계의 배아를 보여준다. 오른쪽 사진은 자궁 속에 배아가 자궁 벽에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 겹으로 보호받고 있다.

산의 기능

우리는 산을 지구 표면에 울퉁불퉁 솟아난 매우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지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산은 지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각 아래는 밀도가 낮고 다소 유동적인 층이 있기 때문에 지각을 제자리에 고정시키고 안정되게 유지하려면 무언가가 필요하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지각이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은 산의 봉우리가 지각 위에 있고 뿌리가 지각 밑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산이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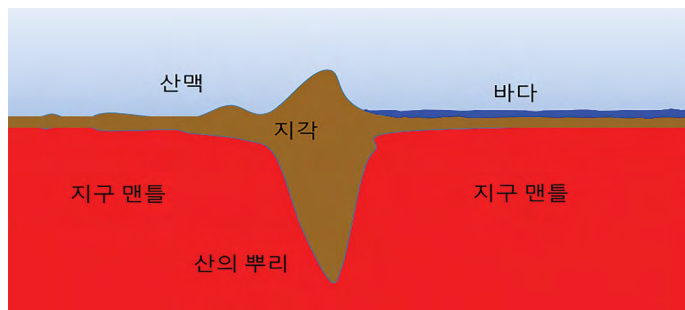
코란 Qur'an(21:31)에서 알라 (Allah) 말하시길,

**우리는 대지에 그것이 사람과 함께 요동할 수 없도록
산들을 받쳐 놓았고 또 거기에 큰 도로를 만들었다.**

코란 78장 6절과 7절에서는,

**우리는 대지를 용단처럼 펼치고, 산들을 말뚝처럼 세우지
않았던가?**

산의 기능에 관한 이러한 구절은 현대 과학 지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산에 뿌리가 있다는 생각은 1865년에 이론화되었고 20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뿌리가 지각을 안정시킨다는 이론이 발달되었다.¹⁵



지구 맨틀 속 깊이 뿌리내린 산을 보여주는 그림

물은 생명

물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은 상식이지만, 코란(Qur'an)은 한발 앞서 모든 생물이 사실상 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위에서 설명한 구절 21:30 외에도 구절 25:54를 보면,

**물로 사람을 만들고 혈연과 인척을 설명하신 분도
이분입니다. 주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현재 살아있는 세포의 80%가 물로 이루어졌고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가 최소 50%의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립된 사실이다.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생물은 존재하려면 물이 필요하다.



물은 생명이다: 변화하는 전 세계 날씨 패턴과 그에 따른 비의 부족은 세계 많은 지역에서 동물과 식물의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과학적 진술은 1400년 전 사람들이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던 시기에 코란에 밝혀진 수많은 진술 중 일부에 불과하다. 과학 지식의 발달로 많은 것들이

지난 세기에 사실로 입증됐으며, 코란(Qur'an)의 이러한 내용은 현대 과학과 완전히 일치한다.¹⁶



코란(Qur'an)의 정통성

코란(Qur'an)은 정말 신의 계시인가? 오늘날 세상에는 서로 모순되는 많은 경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신으로부터 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확장으로 일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오랜 세월에 걸쳐 코란이 변하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의 답은 진실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코란 자체에서 찾을 수 있다.

기준 1

주님의 진정한 계시는 완전히 일관되고 어떠한 모순도 없다. 코란(4:82)에서 알라(Allah) 말하시길,

그들은 코란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 이외의 자들로부터 나왔다면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할 것이다.

모순이나 오류가 있는 경전은 하나님에게는 있을 수 없다. 코란(Qur'an)은 어떤 모순도 불일치도 없다. 이는 또한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의 손에 의해 코란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준다. 코란(Qur'an)의 일부 비평가들이 종종 언급하는 모순은 코란(Qur'an)의 아랍어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과 특정 구절에 관한 맥락을 모르기 때문이다.

기준 2

신의 진정한 말씀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고 논쟁, 이성, 웅변, 문체뿐 아니라 법, 도덕적 가치, 정신적 지도에서 인간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충족시킨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코란(Qur'an)과 비슷한 책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당당히 고한다. 구절 2:23-24에서 알라(Allah)는 불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우리들이 종에게 준 것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필적할 수 있는 한 구절이라도 대보아라. 또 그대들이 진실을 말한다면 알라 (Allah) 외에 다른 증인들을 불러 보라.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면, 절대로 할 수도 없지만, 그때에는 그 사람과 돌을 연료로 하여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만든 지옥의 불을 두려워할지이다.

알라의 경고는 구절 17:88에도 나온다.

말하여 주라, 가령 인간과 진이 일치해서 이 코란(Qur'an)과 닮은 것을 만들려고 해도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다. 가령 서로 도와 주었다 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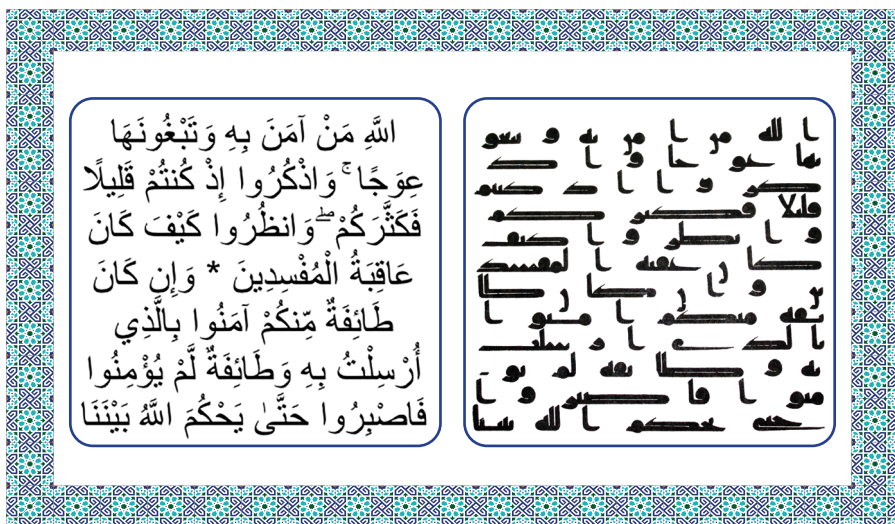
이러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뿐이다. 누구도 책을 쓰고 나서 지금이나 미래에 비슷한 책을 쓸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더구나 코란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람들에게 의해 바뀌었다면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책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도전은 지난 14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기준 3

신의 계시란 인간의 지식이 진보하고 인간의 욕구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시간의 도전을 견뎌내고 관련성을 유지해야 한다. 법과 정의, 경제, 사회체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코란(Qur'an)의 원칙은 1400여 년 전 코란이 밝혀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또, 제6장에서 증명했듯 코란(Qur'an)은 자연 과학 분야의 현대 지식과 모든 면이 완전히 일치된다.

신이 아닌 자로부터 코란이 유래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었다면 코란(Qur'an)의 관련성은 수세기 동안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코란(Qur'an)은 인류의 지식과 필요의 모든 면에서 영원히 유효하다.

이 기준은 코란(Qur'an)의 다른 계시와 함께 코란(Qur'an)의 필요와 지도에 강렬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적과 같은 코란(Qur'an)의 본질을 입증하고 증명합니다. 사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예언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라(Allah)의 뜻에 따라 많은 기적을 이뤘지만 그가 주장하는 유일한 기적은 바로 코란(Qur'an)뿐이다.



코란(Qur'an) 7장 86-87절의 원본(오른쪽)과 나중에 쓰는 버전(왼쪽).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 때 아랍어는 모음이나 분음 기호(아랍어로 각각 tashkil과 l'jam)가 없는 매우 기본적인 기호들로 구성되었다.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코란을 잘못 읽고 발음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모음과 분음 기호는 무함마드 사후 60년 경에 도입되었습니다.

예언자의 전통

예언자의 전통(아랍어로 순나 또는 순니 Sunnah/Sunan)이란 알라(Allah)로부터 영감을 받고(코란 53:3) 제자들에게 계승된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과 삶의 본보기를 의미한다. 이는 코란과 구별되고 분리되며, 이슬람에서 코란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가르침의 원천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살아 있는 동안 공개, 기록, 편찬된 코란과 달리 예언자의 전통은 일반적으로 그의 사후에 기록되고 편찬되었다. 전통에 대한 기록은 예언자가 죽은 직후에도 있었지만, 8세기 중반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9세기까지 번창했다. 예를 들어, 8세기 말에 무스나드 아르 라비의 빈 하비브가 기록되었고, 9세기에는 사히 알 부카리와 사히 무슬림이 편찬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이 예언자의 전통을 옳고 전파하면서 정통성을 증명하는 정교한 방법이 발달되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서술자들의 내력, 전통의 내용, 해당 전통이 발생된 배경을 자세히 조사하고 전통의 범주를 몇 가지 인증으로 분류한다. 오늘날에도 이 인증법(아랍어로 isnaad)은 원본 전집에 포함됐을 수 있는 거짓 전통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언자의 전통은 이슬람 지도와 율법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코란(Qur'an)에 계시된 구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의미를 상세히 설명한다
2. 코란 다음으로 이슬람 율법의 두 번째 주요 근원이며,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에 관한 그들의 판결은 코란(Qur'an)과 같은 위치에 있다
3. 코란의 경고를 강화하고 그 권위를 입증한다

4. 코란(Qur'an)에서 요구하는 예배 의례를 수행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다
5. 코란(Qur'an)에 담긴 윤리적 가치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한다

다음은 예언자의 전통에 대한 세 가지 예이다.

아부 우바이다는 자비르 빈 자이드가 이븐 아바스(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시기를)로부터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우리 안에는 우리를 속이는 자가 없고, 젊은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어른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무스나드 아르 라비 빈 하비브, 하디스 제582호)

아부 알 민할은 “알바라 빈 아지브와 자이드 빈 아르캄에게 금전을 교환하는 법을 물었더니 ‘우리는 알라 (Allah)의 사도 시절에 장사꾼이었다. 우리는 그분에게 금전 교환에 대해 물었다. 그분은 ‘손에서 손으로 하는 것이라면 아무 해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허락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사히 알 부카리, 판매서, 하디스 제276호)

아부 후라이라는 알라 (Allah)의 예언자(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여자에게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되고, 처녀의 허락을 받기 전에는 처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예언자(에게) 그녀(처녀)의 동의를 어떻게 얻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예언자는 ‘그녀가 침묵할 것이다’라고 했다. (사히 무슬림, 결혼서, 008권, 제3303호)

이러한 예들은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 규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예언자의 수많은 전통 중 하나이다.

사후세계

죽음은 피할 수 없으므로 사후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사후세계를 완전히 부정한다. 즉 죽음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망각하고 좋은 일만 바란다. 어느 경우든 사후세계는 영원한 삶을 의미하므로 둘 다 큰 도박을 하는 것이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은 죽음이 다가올 것을 알고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역할이다. 종교는 사후세계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것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증명

종교에 대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사후세계가 실존한다는 것은 이성과 상식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다음 주장을 생각해보자.

주장 1: 신의 피조물 중 인간은 지성과 논리의 힘, 자유 의지를 지녔다. 이러한 특징과 함께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능가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리적 잠재력을 지녔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했을 때 이 위대한 잠재력을 인정하여 천사들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명하였다.¹⁷ 인간의 지식이 확대되면서 인간은 우주의 깊이를 탐사하고,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의사 소통을 하고, 유전자 변형 식품을 만들고, 인공 지능을 발명하고, 무수한 발전을 이룩했다. 신이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 없이 **인간**이라는 이 위대한 피조물이 그냥 살다가 죽겠금 창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코란(Qur'an)을 보면 옛날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생활뿐이다. 죽고 산다는 것뿐이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은 다만 때만이다라고 말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저 억측할 뿐이다.
(코란 Qur'an 45:24)

진실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주장 2: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지식과 설계에 담긴 궁극적인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더 만족스러운 삶, 곧 영속적인 안녕과 영생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은 우리 현세적 존재의 불완전함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할 수 없으므로, 인간이 갈망하는 이 완전함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 완전함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궁극적인 완전함이 완성될 내세에 존재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존재는 영원하고 완전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신의 섭리입니다.

주장 3: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지니도록 창조되었다. 우리 중 일부는 정의를 선택할 수 있고 일부는 불의와 악을 선택할 수 있다. 악인은 동족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권력과 영향력, 인간 법의 약점, 법체계의 부패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정의로 결코 처벌할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백만 명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라. 어떤 처벌을 이 사람에게 내려야 정말 정의로울 수 있는가? 궁극적인 정의는 이 세상에서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진정한 정의에 대한 우리의 바람은 사후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사실, 사후세계가 없다면 완전히 불공평할 것이다.

주장 4: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은 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창조되었습니다(아랍어로는 Fitrah 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통틀어 대다수의 인류가 내세를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문명의 역사적 기록은 사람들이 사후 세계로의 전환을 위해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죽음이 영혼을 다른 차원, 즉 새로운 인도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장 5: 코란(Qur'an)은 다음을 자세히 설명한다: (a) 자연 과학의 수많은 현상(제6장 참고), (b) 역사적 사건, (c) 인간 문명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법과 도덕 기준. 이러한 설명 중 거짓이나 무효로 판명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코란의 진실성과 타당성이 확고한데 왜 코란(Qur'an)이 그렇게 강조하는 사후세계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가?

위 주장은 사후세계가 필요가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납득하게 한다.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논리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슬람 훈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존재 속에서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 이 지구에서 우리의 삶은 우리 존재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기간이다. 죽음은 ‘죽음과 부활 사이 중간 상태’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시작을 뜻한다. 이를 아랍어로 바르자크(*Barzakh*)라고 한다. 무덤에 있는 기간 동안 우리는 영적 의식이 충만한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깨어난다. 현세의 삶에서 내세를 준비한 사람들은 즐거움과 만족을 기대하며 기쁨과 안도를 경험할 것이다. 반면에 사후세계의 존재를 무시한 사람들은 곧 겪게 될 고난으로 크게 후회하며 고통받을 것이다. 코란(Qur'an)에 따르면 서로 상반된 이 두 가지 상태는 죽음 직후 천사가 영혼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는 알라 (Allah)이시다’고 말하고
정도를 걷는 자에게는 천사들이 내려가서 ‘무서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약속된 낙원의 복음을
듣도록 하라. (코란 Qur'an 41:30)**

그대에게 보이고 싶은 것, 천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들여 얼굴이든 엉덩이든 가리지 않고 내던지는 그 모양을. 자, 불로써 주는 벌을 맛보아라.

(코란 Qur'an 8:50)

무덤 속의 이 시기는 우리가 지상의 삶에서 내린 선택들의 결과를 알려주는 사후세계의 첫 단계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무덤은 다음 생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다. 무사히 통과하면, 뒤에 오는 것은 이보다 더 쉽다. 하지만 이 첫 단계에서 실패하면 뒤에 오는 것은 더 고통스럽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영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피조물이 새로운 차원의 존재, 새로운 세계로 변하는 시간의 끝이나 시간까지 이 중간 상태에 머무른다. 이 중대한 사건은 코란(Qur'an)에서 생생한 말로 묘사된다. 예를 들어, 코란(Qur'an) 22:1-2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아, 너희들의 주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진실로 그때(최후의 심판일)의 지진은 소름끼치는 일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는 날, 젖을 먹이는 여자는 모두 자기의 젖을 빠는 아이를 잃고 임신한 여자는 태아를 유산할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취한 것처럼 보일 것이나 실은 그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알라 (Allah)의 징벌이 처절한 까닭이다.

시간의 끝은 죽은 자의 부활과 인류 전체의 재창조로 시작될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코란은 이 날을 불신자들에게 매우 힘든 날로 묘사하는데, 불신자들은 자신의 길을 바꿀 수 있도록 지구에서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간청하지만 신자들은 이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한다.¹⁸

그런 다음 인류는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모인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이다. 코란(Qur’an)은 이 날을 ‘통한의 날(19:39)’, ‘승리의 날(32:29)’, ‘노여움에 접하는 날(76:10)’, ‘육중한 그날(76:27)’, ‘경탄스러운 날(19:37)’, ‘커다란 날(38:16)’, ‘청산의 날(40:27)’ 등 다양한 용어로 설명한다. 심판의 날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적 가치를 심판하는 날이다. 의로운 자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기대되는 날이고, 하나님과 심판의 날을 부정하는 자에게는 후회와 탄식의 날이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코란(Qur’an)의 구절로 요약된다.

오, 인간이여, 참으로 너희는 주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 정진하는 자, 기필코 주님을 만나 뵈을 몸인 것이다. 오른손에 자신의 장부가 주어지는 자는 수월하게 청산을 받고 그 식구들 곁으로 기뻐하며 돌아갈 것이다. 이에 반해 등 뒤에 장부가 주어지는 자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외치면서 불길 속에서 타 죽으라. 확실히 그는 지난날 식구들 있는 데서 즐겁게 지내고 있었다. 소환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었다. (코란 Qur’an 84:6-14)

이슬람은 의로운 자들이 사후세계에서 가족은 물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친다.¹⁹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친구들을 낙원에서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려준다. 하지만 악인들에게 이는 모두 금지된 시나리오이고 악인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다가올 징벌을 너희들에게 경고했다. 그날 사람들은 애당초 그 손이 행한 것을 보게 되고 배신자들은 아, 가능한 일이라면 티끌이 되고 싶구나 라고 하리라. (코란 Qur’an 78:40)

다른 종교에 대한 이슬람의 입장

인간은 창조주와 선천적인 기본 도덕 가치(아랍어로 피트라 Fitrah)를 자연적으로 인정하게끔 만들어졌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본래의 규범을 일깨우기 위하여 일련의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모든 예언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법과 경배의 형태는 달랐지만 기본 교리(하나님의 유일성, 사후세계와 정의에 대한 믿음)는 항상 일관되었다.²⁰ 코란(Qur'an) 42:13에서 알라(Allah)가 말하시길,

알라(Allah)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신 종교를 너희들의 종교로 결정하시었다. 그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계시하였고 또 옛날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에게 ‘ 신앙을 지켜라. 이것 때문에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일러두신 것과 같은 종교다. 사신을 나란히 숭배하려는 자를 당신이 부르려고 하는 이 종교는 그들에겐 커다란 짐이다. 하나님께서는 뜻에 알맞은 자를 스스로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회오하는 자를 자신의 곁으로 인도하신다.

교리와 종교는 시간과 함께 본래 말씀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며 다양한 변화를 겪었다. 코란(Qur'an)에서 알라(Allah)는 진정한 일신교 신도이고 인간의 역사에서 후기 예언자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본 교리로 돌아가라고 말하신다. 따라서 이슬람 관점에서 모든 종교는 다음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일신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예언자 아브라함(그분에게 평화와 깃들기를)의 동일한 유일신교 전통을 공유하는 종교이다.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이 세 종교는 모두 믿음과 종교에 대한 기본 원리가 같다.

유대교인과 기독교인은 코란(Qur'an)의 여러 구절에서 ‘책의 백성’으로 나온다.²¹ 이는 성경, 즉 토라와 복음(복음서)으로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재 이 두 성서는 엄밀히 말하면 예언자 모세와 예수(그분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본래 계시한 말씀이 아니다.²² 따라서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모세와 예수(그분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진정한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종교로 본다.

코란(Qur'an)은 모세와 예수(그분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완성할 뿐 아니라 현존하는 계시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밝혀졌다.²³ 이러한 이유로 이슬람 관점에서 보면 모세와 예수(그분들에게 평화가 깃들기를)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상 코란(Qur'an)을 믿는 이들이다.

2. 기타 종교

유대교와 기독교 이외의 종교, 예를 들어 힌두교, 불교, 기타 종교에 대해 이슬람은 예언적 전통을 지닌 계시와 거리가 멀고 아브라함의 정통성과 관련이 없는 종교로 본다. 이들 종교 중 일부는 무신론 쪽으로 기울어 있고, 일부는 유일하고 진정한 주님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연관시켜 완전히 이탈된다. 다른 신을 유일무이한 진정한 신과 결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제3장 참조).

하지만,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알라(Allah)는 인류를 창조하고 신앙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므로 이슬람은 이러한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과 모든 신앙을 존중한다. 코란(Qur'an) 10:99에서 알라(Allah)가 말하시길,

**만일 당신의 주의 마음이라면 지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일제히 신앙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사람들에게
강제로 신자가 되게 하려는가?**

이는 다른 구절인 2:256에서도 나온다.

종교에 강요는 금물이다. 벌써 옳은 길은 잘못과 구별된다.

따라서 믿음의 다양성은 인류를 창조하신 알라(Allah)의 계획에 속한다.²⁴ 이러한 인식과 함께, 역사를 통해 이슬람교도(무슬림)는 평화, 사랑, 호의, 조화 속에서 다른 신앙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다. 이슬람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 인류의 평등과 의지의 자유라는 근본원리에 입각한 도덕적 가치를 구현한다는 것은 실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매년 메카 순례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300만 명 이상 한곳에 모여 유일신 알라(Allah)께 경배를 드린다. 성지 순례는 종교의 단일성과 인류의 단합을 실제로 증명하고 강화한다.

이슬람에서보는예수 (Jesus)

이슬람 믿음의 원칙 중 하나는 알라(Allah)의 모든 예언자를 믿는 것이다.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예수(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를 알라(Allah)의 위대한 예언자 중 한 명으로 여긴다.

성경에 비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그가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되어 오랫동안 신비에 싸여 있었다. 예수의 이름은 코란(Qur'an)에서 25번 언급되는데, 코란(Qur'an)은 예수의 성격과 가르침을 둘러싼 신비와 미신을 명확히 하고 거짓 주장으로부터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진정으로 경배하고 알라(Allah)의 진실하고 경건한 종으로 찬미한다. 코란(Qur'an)에 따르면,

- 예수(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기적과 같은 잉태로 탄생했다. 예수(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아버지가 없으므로 부계 혈통이 없지만 마리아가 예언자 집안의 출신이어서 고귀한 모계 혈통을 따른다. 잉태는 기적이지만 예수는 전적으로 인간이다. 코란(Qur'an)은 예수가 예언자로서 알라(Allah)의 부름을 받은 인간이며, 예수가 스스로 그 이상의 존재임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준다.²⁵ 예를 들어, 코란(Qur'an) 5:116-117을 보면 알라(Allah) 심판의 날을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또 알라(Allah)께서 이렇게 물었을 때의 일, '마리아의 아들 예수여, 너는 사람들에게 '알라(Allah)가 아니라, 나와 나의 어머니를 신으로 숭배하라'라고 말하였는가?' 예수는 대답하기를 '당신에게 영광 있으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을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제가 그런 말을 하였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당신의 마음속을 모릅니다. 참으로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이 명령하신 것, '내 주이시면서, 너의 주이신 알라(Allah)를 숭배하라'라는 것 이외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머물고 있는 동안은 내가 그들의 증인 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부르신 후는 당신이 그들의 감시인으로 계셨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모든 일의 증인이십니다.

예수(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겸손하고 주님을 경배했으며, 자신이 신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난다.²⁶

- 예수는 메시아(크리스트)였다. 이는 그가 알라(Allah)의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거나 예언자로 명명됐음을 의미한다.²⁷
- 예수는 많은 기적을 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알라(Allah)가 허락하신 것이다. 갓난아기였을 때 예수는 처녀가출산했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던 어머니 마리아를 변호하기 위해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예수는 알라(Allah)가 허락하여 죽은자를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나병환자를 치료했다.²⁸
- 예수에게는 복음 또는 복음서(아랍어로 알 인질 Al-Injeel)가 내려졌다.²⁹ 코란(Qur'an) 5:46을 보면 알라(Allah)가 말하시길,

우리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이전에 내린 율법을 확증하기 위해 저 자들의 뒤를 따르게 했다. 또 우리들은 그에게 인도와 광명을 담은 복음서를 주었다. 그것은 이전에 내린 율법을 확증하는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에의 인도와 훈계가 된다.

- 예수는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보내졌다. 이는 코란(Qur'an) 3:49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예수를 가리키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사도로서 보내실 것이다...”

예수(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 보내졌음은 오늘날 다양한 버전의 성경에도 나온다.³⁰

- 예수는 죽거나 십자가에 못박히지 않았다. 알라(Allah)는코란(Qur'an) 4:157-158에서 이를 밝혔다.

그뿐인가. '우리들은 구세주, 신의 사도,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어쩌서 잡혀 죽었겠는가. 어찌하여 십자가에 매달렸겠는가. 단지 그와 같이 보였을 뿐이다. 본래 이 점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해서 그들에게 어떤 확실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나름대로의 억측에 불과하다. 아니 그들은 절대로 예수를 죽이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알라(Allah)께서 그를 자기 곁으로 끌어들이신 것이다. 알라(Allah)께서는 위력 있고 총명하신 분이시다.

예수의 원수들이 예수(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를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했으나 알라(Allah)께서는 그의 예언자가 굴욕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알라(Allah)는 예수를 보호하고 구했다.



이슬람교에서 세 번째로 성스러운 모스크인 예루살렘의 알 아크사 모스크. 코란(17:1 및 53:13-18)에서 언급했듯이 서기 621년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알라(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가 이 모스크에서 승천했다.

왜 이슬람인가, 모든 종교가 옳지 않은가?

선의, 조화,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는 기본적으로 신과 신앙으로 이끌어주므로 이러한 종교는 받아들여도 된다는 그릇된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해, 종교는 모두 본질적으로 선하고 평등하기 때문에 특정 종교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 방식은 두 가지 이유로 결함과 모순이 있다.

첫째, 종교는 창조주 알라(Allah)께 바치는 우리의 헌신이다. 종교는 우리가 어떻게 그와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를 경배하며, 그의 의지에 따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수행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모든 ‘방법’은 창조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진실되고 올바른 종교는 창조주가 규정한 종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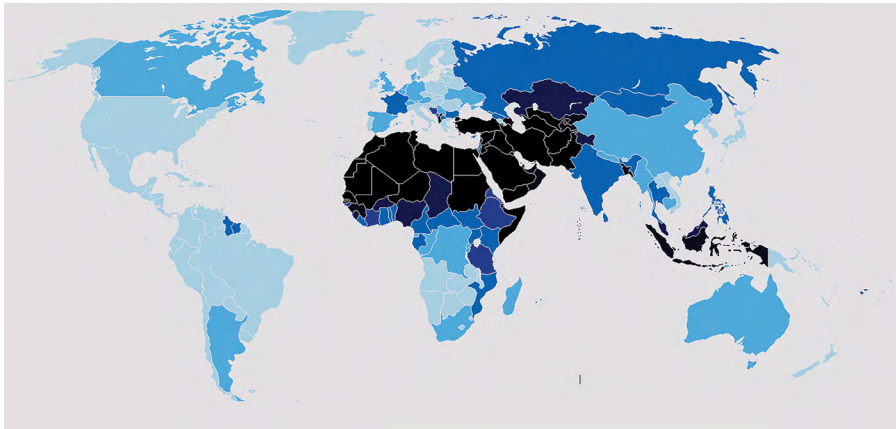
둘째,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창조주의 진정한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다양한 종교가 있고 실제적 모순뿐 아니라 주요한 교리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말이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신도들이 믿는 종교라고 해서 모두 창조주의 절대적 유일성(일신교)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도 종교적으로 큰 차이가 존재하고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불법인가에 대해서도 종교 간 입장이 다르다.

무엇보다 분명하게 창조주에게는 모순이 없다. 따라서 그의 종교는 전인류에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기본 신념과 실천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지식과 이성을 통해 진실을 찾는 것은 개인의 몫이다. 모든 종교가 본질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이를 용인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종교는 **알라(Allah)의** 종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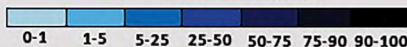
이슬람교는 종교에서 독창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는 모든 초기 인류에게 보여진 것과 같은 종교이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의 다양성은 예언자들의 처음 계시가 변화를 겪기 때문에 나타난다.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와 최후의 계시 코란(Qur'an)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왔다. 따라서 창조주가 용인하는 유일한 종교는 이 마지막 계시, 즉 알라(Allah) 뜻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이슬람이다. 코란(Qur'an) 3:85에서 알라(Allah)가 말하시길,

이슬람 이외의 종교를 구하는 자는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런 자는 내세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슬람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그분들에게 평화와 깃들기를)를 포함하여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모든 예언자들의 종교였다. 이들은 창조주에게 복종하고 그의 뜻을 완전히 받들었다. 이슬람은 또한 각 예언자들의 진정한 가르침을 지킨 선대 예언자들을 따르는 성실한 신자들의 종교였다.



세계 이슬람교도 인구(%)



무신론과 불가지론에 대한 경고

무신론은 최고 존재(주님)를 부정하고 사후 세계를 거부한다는 의미이다. 불가지론은 최고 존재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다.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 모두 이러한 부정과 의심의 이유를 다양하게 든다. 옛날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신의 존재를 보거나 느낄 수 없고 인간이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 즉 신이 있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았다. 현대에 와서 이러한 이유는 더 정교해지고 있다. 과학적으로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데 신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신이 없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이슬람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양심, 지성, 이성애 호소하며 이러한 거부와 회의론에 대처한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본질은 무한히 다르고 인간에게는 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더욱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물리적 형태를 알라(Allah)께서 가지고 계신다면, 그는 공간과 시간, 물질에서 제한되거나 제약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불합리한 주장이다. 왜냐하면 공간, 시간, 물질은 피조물이므로 창조주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코란(Qur'an)은 사람들을 창조에 대한 지적 질문으로 초대하여 피조물을 통해 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코란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증거(아랍어로 아야 ayah)라고 부르는데 코란(Qur'an)에는 수백 가지 증거가 있다. 코란(Qur'an) 41:53에서 알라(Allah)는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우리는 하늘 안에서도, 그들 중에서도 이것이 진리임을 알 때까지 증거를 나타내 보여 주리라. 당신의 주께서 만물의 증인이시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즉, 이러한 약속을 통해 코란(Qur'an)은 만물에 일어나는 신의 존재에 대한 수많은 증거를 생각해보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예를 들어, 코란(Qur'an) 3:190에서 알라(Allah)가 말하시길,

보아라! 천지의 창조와 낮과 밤의 교체는 마음 있는 자에게 있는 증거이다.

실제로 하늘과 땅의 창조에서 과학자들은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a) 우주는 시작이 있었다. 즉, 우주는 무에서 시작되었다, (b) 우주는 정확하고 상호 연관된 물리적 법칙과 과정에 따라 진화했다. (c) 지구와 태양 간 거리, 중력, 대기 구성, 물의 존재 등 매개변수가 200 개 이상 존재해서 생명체가 지구에서 살 수 있다와 같은 사실들이다.

알라(Allah)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절을 보면,

알라(Allah)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해주시는 분. 그것은 너희들이 마시는 물이 되고,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의 사료가 되는 초목도 그것으로 자란다. 또 그것으로 곡식, 대추야자, 포도 등 그 외에 모든 과실을 너희들을 위해 자라게 한다. 참으로 이 중에는 사려 깊은 자에 대한 계시가 있다. (코란 Qur'an 16:10-11)

이 구절은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다양하게 언급한다. 여기서 예를 든 한 가지 증거는 바로 비의 형성이다. 비가 올려면 지구로부터 습기의 증발을 일으키는 수백 가지의 물리적 법칙과 정확한 매개변수가 있어야 한다. 습기는 하늘로 올라가 물방울로 응축되고, 물방울이 쌓여 구름이 되고, 수천 톤의 물방울을 실은 구름이 움직이며 이 물방울들을 아래로 떨어뜨려 비가 내리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정확한 물리적 법칙과 매개변수에 의해 관리된다. 코란은 이런 수천개 만물의 증거를 꼼꼼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사고력과 합리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설계자이자 창조주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모든 지적 설계, 복잡성, 정밀성, 그리고 모든 심오한 역학관계가 무작위적인 우연의 결과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현대 과학자들도 이와 동일한

논리적 결론을 내렸다.³¹

코란(Qur'an)은 또한 모든 인간이 창조주를 인식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아랍어로 피트라 fitrah)을 지니도록 만들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³² 이에 대한 증거로, 중요한 위기에 처하고 어떤 사람도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알라(Allah)에게 고개를 돌려 도움을 요청한다. 우리 창조주는 예언자를 임명하고 인류에게 경전을 보내 알라(Allah)를 인식하는 이러한 양심을 일깨웠다. 하지만 알라(Allah)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인식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억압 할 수 있다. 코란(Qur'an)에서 알라(Allah) 내면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자는 알라(Allah)가 인도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양심을 억누르는 자는 길을 잃게 놔둔다고 하셨는데, 이 또한 우리 피조물에 대한 알라(Allah)의 계획이라고 말하신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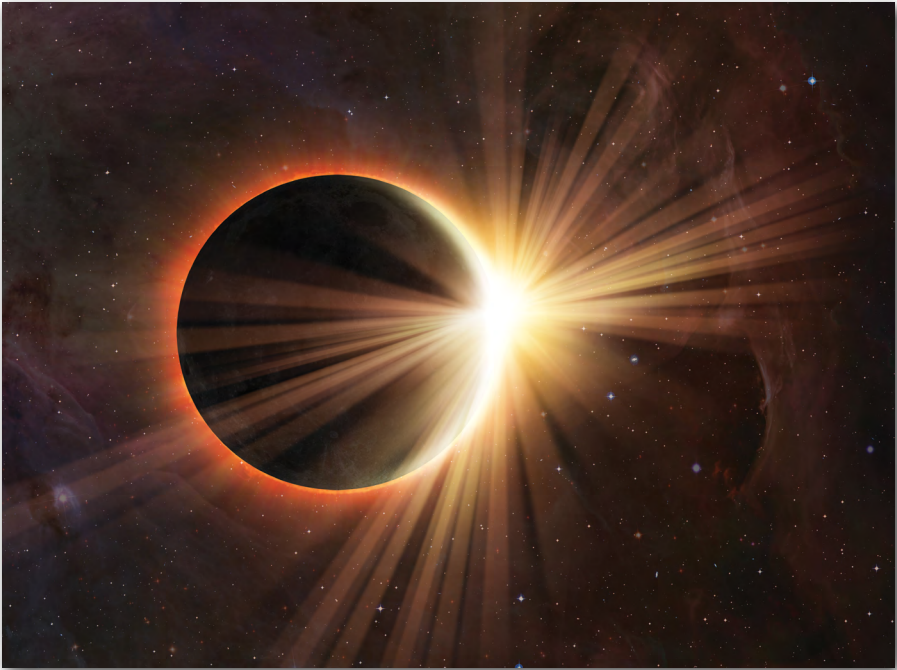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보내진 코란(Qur'an)은 그 자체가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이다. 코란(Qur'an) 4:82를 보면,

**그들은 코란(Qur'an)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는다.
만일 그것이 알라(Allah) 이외의 자들로부터 나왔다면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할 것이다.**

코란(Qur'an)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연구는 사람이 코란(Qur'an)을 썼을 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제7장 참고). 코란(Qur'an)은 주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신은 영원한 신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창조했고, 대부분의 피조물을 능가하는 우리 인간을 좋아했다.³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이고 사후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이 준비 기간 동안 창조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역경은 물론 번영을 통해서도

시험된다. 또 우리는 자유 의지를 어떻게 행하는지 시험 받으며, 우리 삶에 관여하는 선과 악을 통해 자유 의지에 대한 시험을 받는다.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지 신이 아니다. 악과 고통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자 인간을 위한 경고이고 제재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더 높은 목적을 위한 탐구를 통해 우리 내면의 의식을 깨닫게 되는 것은 종종 이러한 역경 속에서 이뤄진다.



일식: 태양은 달보다 지구로부터 400배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달보다 400배 더 크기 때문에 이 놀라운 현상이 가능하다. 창조주께서 이렇게 정확한 비율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만드셨다.

이슬람 속 여성의 지위

이슬람은 엄격하게 남성과 여성을 창조주 앞에 동등한 존재로 생각한다.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와 가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과 같이 코란(Qur'an)(4:1)에 잘 정리되었다.

인간들아, 너희들의 주를 공경하라. 너희들은 단 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 내시고 그 일부에서 배우자를 만드시고 이 두 사람으로부터 무수한 남자와 여자를 지상에 뿌리시었다. 알라(Allah)를 공경하라. 너희들이 서로 부탁할 때는 늘 그분의 이름을 불러 받드는 분이 아닌가. 또 너희들은 또 어머니의 태를 존중하라. 알라는 너희들을 보고 계시다.

이 구절을 보면 여자는 본질적으로 남자와 같고 둘 다 동일한 권리를 지니며, 하나님은 여자, 특히 어머니를 특별히 존경하고 공경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숭고한 원칙에 따라

이슬람은 7세기 이슬람이 태동했을 때 단순히 남자를 섬기기 위한 존재로 여성을 대하던 전 세계 악습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고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주었다.³⁵ 따라서 이슬람에서 여성은 재산권, 상속권, 교육권, 생계 유지권 등 남성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지닌다.

일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이 고통 받는 부당함은 이슬람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슬람이 맞서 싸워온 문화적 관습이다. 예를 들어, 강제 결혼이나 소녀들의 교육을 제한하는 것은 일부 이슬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불법이다.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

종교적 극단주의와 폭력은 세계 모든 종교에 존재하는 현상으로 종교만큼이나 오래되었다. 모든 종교에는 항상 믿음에 대해 극단적이고 종종 그릇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 극단적 종교 이념이나 급진적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로 인해 많은 전쟁이 발발하고 잔학 행위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간 성향을 저지하기 위해 이슬람은 자유 의지, 인간 존엄성 보존, 모든 신앙에 대한 존중, 생명의 소중함, 정의, 모든 인류에 대한 공정성을 믿음의 조건으로 하며 이러한 원칙 위에 인성을 발전시킨다.

자유 의지와 모든 믿음에 대한 존중

알라(Allah)는 믿음과 관련하여 양심과 의지의 자유를 지닌 인간을 창조했으므로 종교에 대한 믿음을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코란(Qur'an) 2:256, 10:99와 더불어(제10장 참고), 알라(Allah)는 코란(Qur'an) 11:118-119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만일 뜻만 있으셨다면 그대의 주께서는 단 하나의 민족으로 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 그대의 주의 자비를 받는 자는 별도이지만, 그것도 이렇게 되게끔 알라(Allah)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그대의 주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나는 진과 인간을 일괄해서 지옥에 차도록 할 것이다.'

믿음의 다양성은 피조물에 대한 신의 계획 안에 있으며 이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과 공존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을 내포한다.

생명의 소중함

이슬람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거나 이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폭력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을 비판한다. 사람을 부당하게 죽이는 것은 이슬람에서 중대한 죄악이다. 알라(Allah)가 말하시길,

즉 살인을 범하였거나 지상에서 나쁜 일을 하였거나 아무 이유도 없이 남을 죽이는 자는 모든 인류를 죽이는 것과 동등하고, 남을 살리는 자는 인류를 살리는 것과 동등하다라고 하였다(코란 Qur'an 5:32).

이슬람에서 전쟁은 자기 방어, 침략이나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³⁶ 하지만 정당한 전쟁은 무고한 민간인이나 그들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침략에 가담한 자들에게 선언된다. 또한 전쟁은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정당한 국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슬람 전쟁은 매우 엄격한 교전 규칙 및 포로, 무고한 사람, 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 규율된다.³⁷

정의와 공정성

정의와 공정성의 결여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이데올로기를 낳는다. 이슬람은 믿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정성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코란(Qur'an) 60:8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알라(Allah)는 종교상의 일로 너희들에게 싸움을 걸지 않은 자나 너희들을 그 집으로부터 쫓아내지 않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친절을 베풀고 공정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공평한 자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원칙에서 극단주의와 폭력은 이슬람 원리에 대한 무지나 종교에 대한 지나친 열성, 또는 종교 이외의 동기로 일어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폭력은 근본 동기를 숨기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종교라는 이름을 빌려오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고 종교 또는 종파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러한 갈등과 폭력의 밑바탕에는 권력투쟁, 지배, 부, 탐욕, 복수, 외국 군대의 개입 결과 등이 있다. 종교로서 이슬람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발발하는 전쟁 또는 다른 형태의 폭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슬람 지하드 (Jihad)

아랍어 지하드(Jihad)'는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투쟁하거나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이슬람의 맥락에서 이는 알라(Allah)의 길을 따라 투쟁한다', 즉 우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코란(Qur'an)은 많은 구절에서 신자들에게 알라(Allah)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코란(Qur'an) 5:35을 보면,

믿는 사람들과, 알라(Allah)를 두려워하고 공경하라. 알라(Allah)에 가까이 가는 수단을 구하여 알라(Allah)의 길을 위해 싸우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영화를 얻을 것이다.

따라서 신자가 기쁨과 알라(Allah)의 인정을 얻으려고 행하는 모든 행동이 지하드이다. 여기에는 예배, 자선, 욕망을 통제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 삶의 수단을 얻는 것, 가족을 부양하는 것,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역사책이나 현대 매체에서 지하드라는 단어는 종종 싸움이나 폭력과 관련하여 거론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아랍어로 '싸우다'라는 단어는 키탈(Qital)이지 지하드가 아니다. 이슬람이 지하드라는 명목으로 칼에 의해 전파됐다는 주장은 역사책에 빈번히 등장하는 가장 환상적인 거짓말이다. 이슬람은 칼이 아닌 숭고한 원칙과 가치에 의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슬람 십자군이나 종교재판은 존재한 적이 한번도 없다. '성전'이라는 단어는 이슬람 용어가 아니다. 성전의 뿌리는 1095년 교황 우르반 2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황은 유럽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성지를 되찾기 위해 이슬람교도(무슬림)에 대항하는 "성전"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슬람교도(무슬림)의 경우 초기 이슬람 역사에서 전쟁을 한 적이 있지만, 이는 침략을 물리치거나 폭정을 타파하고 신앙에서 양심과 의지의 자유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상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지 개종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수백 년 동안 인도를 통치했지만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오늘날까지 인도는 대다수가 힌두교도이다.

지하디스트(Jihadist)'와 '지하디즘(Jihadism)'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무장단체, 그 이데올로기를 묘사하기 위해 언론에서 사용하는 현대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는 현대 신조어로 이슬람 역사와 무관하고 이슬람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

이슬람은 타당한 이유가 없는 폭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오직 자기 방어와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투는 자기를 보호하고 침략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유래한 것이므로 지하드로 분류된다. 알라(Allah)는 코란(Qur'an) 2:193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박해가 없어질 때까지 종교가 알라(Allah)의 것이 될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러나 상대방이 멈추면 부당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지만 적의를 버려야 한다.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는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역사적인 모스크이다. 오늘날에도 기도 시간이 되면 모스크의 꼭신꼭신 붉은 색 양탄자에 남자들이 무릎을 꿇으며 기도를 드린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블루 모스크는 1609년에서 1616년 사이 아흐메드 1세 통치 기간 동안 건설되었다. 이곳의 킬리에(Küllüye)에는 아흐메드의 무덤, 교육시설인 마드라사, 요양소 등이 있다.

이슬람 샤리아(Shari'ah)

샤리아(Shari'ah)는 모든 인간의 삶이 신의 뜻을 따르도록 규율하는 자세한 **행동 강령**이다. 샤리아(Shari'ah)는 기본 믿음(교리), 예배 형식, 윤리, 사회 경제적 원칙, 형률로 구성된다. ‘샤리아(Shari'ah)’라는 단어는 ‘명백한 길’ 또는 ‘길’을 의미하는데, 이슬람 맥락에서 샤리아(Shari'ah)는 구원과 영원한 성공을 위한 길을 의미한다. 이슬람교도(무슬림)가 된다는 것은 성스러운 삶의 방식인 샤리아에 따라 생활한다는 뜻이다.

샤리아의 기본 원칙은 코란(Qur'an)과 무함마드의 전통에서 나왔다. 샤리아 원칙의 구체적인 적용과 새로운 상황에 대한 법적, 종교적 판단은 이슬람 법학자들의 의견 일치(아랍어로 이즈마 Ijma')를 통해 추가적으로 정의된다.

인간의 판단만으로는 전체 인류를 위해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행동 방식을 확립할 수 없다. 인간의 판단은 자아, 편견, 오만, 욕구,



오만 무스카트 고등법원

사리사욕, 감정, 근시안성, 기타 모든 인간적 약점으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인간적 행동 방식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슬람 샤리아(Shari'ah)이다. 샤리아(Shari'ah)는 절대적 **율법**으로 그 목적은 인간의 삶, 존엄성, 마음, 믿음, 소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샤리아(Shari'ah)는 종종 반이슬람적 수사학에서 여성 착취, 아동 결혼, 자유 제한 등을 지지하는 이슬람법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종류의 수사학은 샤리아(Shari'ah)가 실제로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다. 샤리아(Shari'ah)는 사실상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죄악과 샤리아(Shari'ah)가 누명을 쓰고 있는 악에 대한 해결책과 저지력을 제시하는 **행동 강령**이다. 예를 들어, 성 평등에 관한 법과 지침,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권리,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권리, 전쟁 지도, 전쟁 포로에 대한 인간적 대우, 공정 무역 원칙, 종교적 관용, 사회적 예절, 국가 통치 등을 다룬 것이 샤리아(Shari'ah)다.

다음은 이슬람 샤리아(Shari'ah)에서 유래된 공정하고 공평한 상업 행동 규범의 한 예이다. (코란(Qur'an) 26:181-183)



﴿ أَوْفُوا الْكَيْلَ وَلَا تَكُونُوا مِنَ الْمُخْسِرِينَ ﴾

﴿ وَزِنُوا بِالْقِسْطَاسِ الْمُسْتَقِيمِ ﴾

﴿ وَلَا تَبْخَسُوا النَّاسَ أَشْيَاءَهُمْ وَلَا تَعْنُوا فِي الْأَرْضِ مُفْسِدِينَ ﴾

너희들은 계량을 공정히 하며 양을 덜 주어서는 안 된다. 정확한 저울로 계량을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물건에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또 나쁜 일을 하고 땅 위에 죄악을 퍼뜨려서도 안 된다.



이슬람의 분열

예언자 시대와 사후 첫 3 명의 지도자(칼리프) 통치 기간 동안, 비록 제 3대 지도자(우스만 이븐 아판, 서기 644-656년) 시기 때 통치에 대한 몇 가지 불일치가 있었지만, 이슬람은 하나의 단일 공동체였다. 정치적 분열과 극단적 반란은 제4대 지도자 통치기(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 서기 656-661년)에 발생했다. 계속되는 분쟁과 전쟁으로 3개 파벌이 생겼는데, 하나는 알리의 반대파였고 다른 두 파 중 하나는 알리의 지지자로 반대파와의 중재에 동의한 사람들, 나머지 하나는 중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로 이뤄졌다. 역사적으로 이슬람 사회의 분열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었다. 이슬람 역사는 이 시기에 정치 권력과 법적 권한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또 이미 적용되고 있던 샤리아의 결정 원리와 개념을 구체화하는 이슬람 법학자들이 이 세 파벌에 나타났다. 위대한 이슬람 법학자, 자비르 빈 자이드(서기 639-709년), 아부 하니파(서기 699-767년), 자파르 사디크(서기 702-765년), 말리크(서기 711-795년), 샤피이(서기 767-820년), 이븐 한발(서기 780-855년) 등이 대두된 것도 이 시기이다. 이들은 각각 뛰어난 종교적 법적 학문을 지니고 있어 존경의 의미를 지닌 경칭인 이맘(Imam)이라고 불렸고 법과 법적 판결을 추론하는 방법론을 개발했으며 이들을 따르는 추종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10세기 경 이 위대한 학자들이 발전시킨 원칙들이 “율법의 학파”로 정립되면서 학자들이 배타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다. 이에 자비르 빈 자이드는 이바드히(Ibadhi), 아부 하니파는 하나피(Hanafi), 자파르 사디크는 시아(Shia), 말리크는 말리키(Maliki), 샤피이는 샤피이(Shafi'i), 이븐 한발은 한발리(Hanbali) 학파가 됐지만, 이들 이맘 중 그 누구도 개별 학파를 만들려는 의도는 없었다. 음 3세기 동안 평범한 이슬람교도(무슬림)들도 특정 학파를 고수하게 되고,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종교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배타적 충성심을 갖게 되었다.

이슬람 바로알기

이 모든 “율법의 학파”와 함께 이슬람교도(무슬림)는 14세기 전에 계시된 말씀을 그대로 담은 하나의 경전 코란(Qur’an)과 예언자 무함마드의 전통으로 단결되어 있다. 전 세계 이슬람교도(무슬림)의 믿음과 종교의 원칙은 차이가 없으며 예배나 순례와 같은 종교 의식을 동일하게 행한다.

이슬람을 종교가 종파로 나뉘지는 것을 금지한다. 코란(Qur’an) 3:103에서 하나님이 말하시길,

**너희들은 다 같이 하나님과 맺은 줄을 꼭 잡아야지,
놓쳐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서로 적이었던 때 너희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이러한 말씀에 따라 모든 이슬람 율법의 학파는 수세기 동안 하나의 단일 공동체로 살아왔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아온 불행한 이슬람교도(무슬림)의 분쟁과 최근 불거진 사태는 종교와 무관하며 지정학적 투쟁과 관련있다.



다마스쿠스 구도시에 위치한 우마야드 모스크는 다마스쿠스 대모스크라고도 부르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모스크 중 하나이다. 일부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이 모스크를 이슬람교에서 네 번째로 신성한 곳으로 간주한다.

이슬람의 기본 인권

알라(Allah)의 세계에서 인간은 존엄하고 존중 받는 위치에 있다. 알라(Allah)는 코란(Qur'an) 17:7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이미 우리들은 아담의 자손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고 육지와 바다에 그들을 실어다 주고 여러 가지의 좋은 것을 주었다.

이러한 은혜를 받들어 이슬람은 믿음, 인종,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기본권을 보장했다. 다음은 코란(Qur'an)에서 밝힌 이슬람의 주요 기본권이다.

1. 영적 신성과 삶의 권리. 제15장에서 언급한 코란(Qur'an) 5:32와 더불어 알라(Allah)의 말씀은 다음과 같다.

...가난하다고 자기의 자식을 죽이지 말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생명은 정당한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들에게 알려 주라고 알라(Allah)께서 명하신 것이다. (코란 Qur'an 6:151)

2. 삶의 기본적 필요성에 대한 권리.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의무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거지나 버려진 자도 그들 재산의 분할에 한몫 들을 권리가 있다. (코란 Qur'an 51:19)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은 호의도 특권도 아니며,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권리이다.

3. 모든 면에서 자유로울 권리

그러나 그는 험난한 산길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았다. 험난한 산길이 무엇인가를 누가 네게 가르쳐 주라? 그것은 노예를 해방해 주는 일이다. (코란 Qur'an 90:11-13)

속박에는 많은 얼굴이 있다. 그 중에는 신체적·경제적 노예화, 강제 노동, 성적 착취 및 기타 착취의 형태가 있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심판의 날 내가 원고가 될 사람들은 세 가지 범주이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자유인을 노예로 삼는 사람이다.

이슬람은 7세기 때 노예제를 폐지했지만, 서방이 노예제를 폐지한 건 19세기이다.³⁸



중국 시안의 대모스크. 이슬람교는 7세기 초에 중국에서 소개되었다. 오늘날 중국에는 2천만 명 이상의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있다.

4. 모든 인간의 평등: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알라(Allah) 앞에 우수성의 유일한 기준은 인격의 순결과 높은 도덕성이다.

아, 믿는 자들아, 우리는 너희를 남녀로 나누어 창조하였다. 너희들을 부족과 종족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너희들 서로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중의 가장 존귀한 자는 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하고 통찰하신 분이시다” (코란 Qur’an 49:13).

5.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에서 정의와 공정성을 누릴 권리.

믿는 자들이여, 가령 너희들 자신에게 있어서나 또는 양친이나 근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더라도 알라(Allah) 앞에 증언자로서 공정을 지켜라. 비록 상대가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편이 어떤 자에게도 한층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에 따라 길을 잘못 밟아서 안 된다. 만일 너희들이 증언을 왜곡한다면 알라(Allah)께서는 너희들의 하는 일을 전부 알고 계시다. (코란 Qur’an 4:135)

6. 개인의 명예, 존엄성, 사생활 보호.

아, 믿는 자들이여, 어떤 백성이나 다른 백성을 비웃으면 안 된다. 이것은 그것보다 훌륭한지도 모르니까. 또 여자들도 다른 여자들을 조소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것보다 훌륭한지도 모르니까. 너희들 서로가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 나쁜 별명을 붙여서는 안 된다. 신앙을 갖기 시작한 이후에 사악한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나쁜 짓이다. 회오하지 않는 자는 의롭지 못한 자이니라. (코란 Qur’an 49:11)

또한, 코란(Qur'an)에서 49:12에서 알라(Allah)는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아, 믿는 자들이여, 되도록이면 억측을 피하여라. 어떤 종류의 억측은 죄이다. 서로가 살피고 험구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중에 누가 죽은 형제의 살을 먹는 무리를 좋아할 자가 있겠는가. 아니 너희들도 싫을 것이다. 알라(Allah)를 두려워하고 공경하여라. 참으로 알라(Allah)께서는 인정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7. 옳고 정의로운 것을 위해 표현하고 말하는 자유.

믿는 자들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서로 착한 일을 권하며 나쁜 일을 금하며... (코란 Qur'an 9:71)

또한, 코란(Qur'an)에서 4:148에서 알라(Allah)는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알라(Allah)께서는 어떤 부당한 꼴을 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더러운 말을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참으로 알라(Allah)께서는 잘 들으시며 모든 일을 잘 알고 계시다.

8. 믿음의 자유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진실로 인류를 초대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믿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어떤 믿음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믿음은 영혼의 의지적 확신과 성심이기 때문이다. 코란(Qur'an) 2:256에서 알라(Allah) 말하시길,

종교에 강요는 금물이다. 벌써 옳은 길은 잘못과 구별된다.

이슬람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유는 코란(Qur'an)에서 다양한 구절로 나온다.³⁹

이러한 이슬람적 가치뿐 아니라 코란(Qur'an)과 예언자의 전통에 계시된 다른 가치들도 보편적이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이다.

이슬람의 문화적 다양성

이슬람은 사람들의 관습, 인종, 언어, 의복, 음식, 예술, 민속놀이, 기타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정당성을 지니며, 너그러우신 알라(Allah)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슬람은 알라(Allah)의 가르침과 원칙에 모순되는 문화적 측면은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신다.

천지와 갖가지 언어와 피부의 빛깔을 창조한 것도 알라의 징표다. 진실로 그 가운데는 지식 있는 자에의 징표가 있다!” (코란 Qur’an 30:22)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구절을 보면,

아, 믿는 자들아, 우리는 너희를 남녀로 나누어 창조하였다. 너희들을 부족과 종족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은 너희들 서로가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너희들 중의 가장 존귀한 자는 보다 알라(Allah)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알라(Allah)께서는 전지하고 통찰하신 분이시다” (코란 Qur’an 49:13).

세계화된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종종 다양한 인종, 민족,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의 눈에 보이는 차이를 알게 된다. 이슬람권 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화인지, 무엇이 종교인지, 그리고 종교와 문화의 상호작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슬람은 세계 문화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슬람이 보편적 종교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랄 일이 아니다. 이슬람은 사실상 전 세계 구석구석에 퍼져 있다. 이러한 확산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슬람의 틀 안에 표현된다. 즉, 어떤 국가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든 이슬람의 핵심인 믿음과 개인적 실천은

근본적으로 이를 실천하는 모든 이슬람교도(무슬림)들에게 같다. 예를 들어, 모든 이슬람교도(무슬림)는 하나의 신을 믿는다. 모두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 모두 같은 코란(Qur'an)을 읽고 생각한다. 모두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를 믿고 따른다. 모두 사후의 삶과 심판의 날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믿는다. 모두 신의 결단력과 운명을 믿는다. 이슬람 다섯 기둥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이슬람교도(무슬림)에게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오만, 인도네시아, 세네갈, 중국 어디든지 이슬람 기도 소리는 같다. 세계 곳곳의 이슬람교도(무슬림)는 라마단 기간 동안 함께 단식하고 매년 순례나 하지 동안 함께 메카로 모인다. 따라서 이슬람은 문화적 다양성 안에서 기본 믿음과 실천에 강한 일체감을 지닌다.

물론, 종교는 문화가 없는 허상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항상 문화적 배경 안에서 표현을 찾는다. 마찬가지로 문화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닌 도덕적 가치와 종교적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고는 형성되거나 진화할 수 없다. “따라서 종교적으로 중립인 문화는 없고 문화가 없는 종교도 없다.”⁴⁰ 주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이슬람교도(무슬림)(와 비이슬람교도(무슬림))에게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이슬람의 가르침과 원칙에 대한 문화적 해석으로부터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르침과 원칙을 구별하는 것이다.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도 이슬람교도(무슬림)가 코란(Qur'an)이나 순나에서 설명하지 않은 상황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될 것임을 인정하고 예상했다. 통찰력과 분별력을 지닌 법학자들의 비판적 분석과 지성이 요구되는 새로운 문화적, 법적 상황은 항상 있을 것이다. 확실히 세계 지역과 시대에는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때 경험했던 것보다 새로운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이므로 진화하는 문화적 뉘앙스에 대한 해석과 대응은 이슬람교도(무슬림)가 항상 대처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서양에서 온 관찰자들은 보통 이슬람 사회를 평가할 때 두 가지 접근방식 중 하나를 취한다. 첫 번째 접근방식은 이슬람교도(무슬림)를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집단으로 본다. 이슬람교도(무슬림)가 어디에 있든 지역이나 시대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고 생각한다.⁴¹ 이러한 접근방식은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 볼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 두 번째 접근방식은 첫 번째 접근방식과 현저하게 대조된다. 이슬람교에서 경전을 분리하여 주로 민족이나 신자들과 동일시한다. 다양한 민족이 이슬람교도(무슬림)이기 때문에 터키 이슬람, 레바논 이슬람, 오만 이슬람, 인도네시아 이슬람 등 여러 “이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견해를 따르면, 이슬람의 단일 세계는 존재하지 않고 많은 “이슬람들”의 세계가 있다. 이슬람교도(무슬림)들 놓인 상황만큼 “이슬람”도 많다는 것이다.⁴² 여기서 문화적 다양성은 국가별 정체성으로 이슬람을 나눌 수 있을 만큼 확대되었다. 좀 더 정확한 접근방식은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 이슬람의 독특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교로서 이슬람은 순나(예언자 무함마드의 실제 말과 행적)를 담은 코란(Qur’an)과 하디스의 원문에 보존되어왔다. 문자 형태의 이슬람은 변함이 없지만 이슬람교도(무슬림)는 빈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한다. 특정 지형의 조건과 상황, 시대의 쟁점과 도전은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코란(Qur’an)과 순나로부터 영감을 구하는 배경이다. 이 경우, “글”과 “배경” 모두 변함없이 같은 문장에 대한 참신한 이해와 통찰력 있는 해석을 통해 이슬람을 독창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⁴³

개인 수준에서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교도(무슬림)의 경험은 가르침에 대한 지식과 이해 수준, 내면화, 실천 정도에 따라 다르다. 마찬가지로 각 이슬람 사회는 시대와 지역에 존재하는 요인에 따라 이슬람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이슬람교도(무슬림)는 하나로 굳어진 집단도 아니고 다양한 “이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개인과 이슬람 사회는 이슬람을 독창적으로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은 불가피하며

이슬람 바로알기

이슬람 세계에 보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설명한다. 사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이슬람은 주요 원칙과 가르침을 유지하면서 다른 문화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한다. 이슬람교도(무슬림)는 이와 같은 균형을 신의 섭리이자 자비의 증거로 본다. 이슬람은 매우 친문화적이며 문화를 향상하고 강화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 유감스럽게도, 일부 이슬람교도(무슬림)는 문화적 규범을 이슬람 기준에 연결시키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실패하는데, 이는 명백한 무지 또는 역사적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슬람의 정신과 가르침에 대립하는 문화적 습성이 발전하여 왜곡되거나 파괴적인 관습이 실제로 이슬람교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⁴⁴ 일부 이슬람 사회는 이슬람과 잘못 연관되거나 이슬람의 가르침에 잘못 귀속되는 안 좋은 문화적 관행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관행은 강제 결혼, 아동 결혼, 명예 살인, 남아 선호, 여성 할례 등이다. 이 모든 관행은 이슬람적이지 않지만, 오해를 심화시키고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태국 네크혼스리탐마라의 한 모스크에서 이슬람교도(무슬림) 학생이 코란을 낭송하고 있다.

왜 종교가 중요한가?

종교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의 가치관, 행위, 행동은 우리 마음속 양심에 기준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가 물려받은 문화에 의해 형성된다. 문화적 규범은 믿음이 무엇이든 간에 신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문화적 규범(또는 표준)이 없다면 우리 삶의 지향점은 혼란스러워지고 방향 감각, 공허함, 사회가 인식하는 가치와 규범의 붕괴로 이어져 사회는 물론 개인에게 내면적 혼란을 가져온다. 따라서 종교는 문화적 규범과 세계관을 규정하는 믿음을 정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말하자면 종교는 사회와 개인의 온전함을 지키는 보증인이다.
2. 종교는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특징과 본성을 지녔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다. 따라서 종교가 중요한 이유는 종교를 부정하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종교는 인간의 지각이 아닌 현실과 관련된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다. 인간 영혼의 영원한 본성, 사후의 삶, 천사 등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종교이다. 종교가 없으면 물리적 인식 너머에 있는 이러한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
4. 종교는 “난 왜 여기에 있는가?”, “결국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이 삶에서 행한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말해준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삶에 있어서 이러한 목적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 종교는 삶의 방식으로 정의된다. 종교는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활 규범이다. 종교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도덕 기준과 공명정대한 체계를 정의한다.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착취, 부정, 억압, 탐욕, 차별, 부패 등 인간의 모든 악으로 이끈다. 종교는 우리 자신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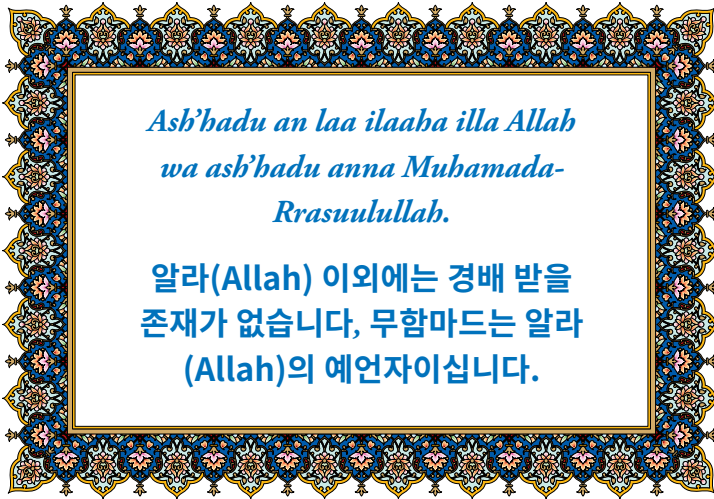
6.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교가 우리의 다음 삶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이다. 제9장에서 설명했듯이 사후의 삶은 현실이며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달라진다. 종교는 우리 창조주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행동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준다.

종교가 없는 삶은 삶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에 대한 넓은 시각을 망각한 삶일 뿐 아니라 다가올 일들을 알지 못하는 비전이 결여된 삶이다. 코란(Qur'an) 구절 67:6-12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자기 주인한테 등 돌린 자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 얼마나 가련한 말로인가? 그들이 그 속에 내던져지면, 타오르는 지옥 불길의 무시무시한 소리를 들으리라. 분노로 가슴이 터질 정도다. 한 떼의 인간이 그 속에 던져질 때마다 파수꾼은 그들을 향해서 ‘경고자가 나타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 그들은 ‘오시고말고요. 경고자 한 분이 오셨습시다만, 우리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내려 주시지 않아. 너희들은 크게 길을 잘못 들었군” 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들은 말한다. ‘우리들이 좀 더 잘 듣거나 이해했거나 했더라면 불길 속에 사는 자의 포로가 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해 버리는 것이다. 불길 속에 사는 패거리들이여, 꺼져 버려라. 보이지 않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커다란 보수가 주어지리라.

어떻게 이슬람교도(무슬림)가 되는가?

이슬람교는 이 책의 제2장에 기술된 6가지 믿음 강령(또는 기둥)과 5가지 종교 강령을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여 이슬람교도(무슬림)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아랍어로 샤하다(*Shahada*)라고 하는데, 믿음의 서약과 확인을 의미한다. 먼저 아랍어로 말한 후 새로운 이슬람교도(무슬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해야 한다.

이렇게 샤하다를 선언하여 이슬람교도(무슬림)가 되었으면 믿음 및 종교 강령에 따라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

비이슬람교도(무슬림)가 이슬람을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 모든 사람이 이슬람교도(무슬림)로 태어나기 때문에 “출생의 종교”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즉,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자연적으로 알라(Allah)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기본적 도덕성을 자각하게 된다(아랍어 피트라 fitrah). 사람이 자라면서 특정 종교로 이끌어지는 것은 부모와 주변 문화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과 종교의 문제에서 진리를 찾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렸다.



진정한 믿음

1. 출생과 조상에 기인하여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2. 진정한 믿음은 지식과 이성, 논리에 근거한다.
3. 믿음의 근거는 확고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 이슬람교에서 믿음과 이성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사람은 이성을 통해 신념을 입증하고 강화해야 한다.

용어

- 알라:** 창조주이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존재의 이름(제3장 참고)
- 아야:** 코란의 구절 또는 ‘신의 증거’
- 칼리프:** 이슬람 공동체의 수장. 대리인을 뜻하는 아랍어 ‘칼리파(Khalifa)’에서 유래
- 하디스:** Hadith(또는 Hadeeth)와 순나(Sunnah)는 각각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와 깃들기를)의 말씀과 삶을 뜻함. 예언자 무함마드의 주요 가르침을 집합적으로 ‘예언자의 순나’라고 부름(제8장 참고)
- 하지:** 이슬람교도(무슬림)의 연례 행사인 메카 성지 순례(제2장 참고)
- 히즈라:** 622년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성천으로 이슬람 음력이 시작한 회교력(제4장 참고)
- 이바드히파:** 이슬람교의 한 분파(제18장 참고)
- 이슬람:** 창조주 알라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과 그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수용과 복종을 요구하는 종교의 이름(제2장 참고)
- 지하드:** 알라를 위한 노력과 투쟁,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인정을 얻기 위해 행하는 신도의 모든 행동이 **지하드**(제16장 참고)
- 카바:** 알라를 경배하기 위해 지상에 지은 첫 번째 신전,

메카에 있는 거대한 모스크 안에 검은 천으로 덮혀 있음

메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북쪽에서 400km 떨어진 도시, 이슬람에서 두 번째로 성스럽게 생각하는 예언자의 모스크(아랍어로 마지드 알 나바위 Masjid Al-Nabawi)가 있는 곳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있는 도시, 카바 신전과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럽게 생각하는 성 모스크(아랍어로 마지드 알 하람 Masjid Al-Haraam)가 있는 곳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고 그 원칙을 따르는 사람

키블라: 이슬람교도(무슬림)가 예배 시에 향하는 메카의 방 향

코란: 예언자 무함마드(그분에게 평화가 깃들기를)가 받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제6장 참고)

샤리아: 기본 믿음(교리), 예배 형식, 윤리, 사회 경제적 원칙, 형률 등을 포괄하는 이슬람 행동 강령(제17장 참고)

시아파(Shia): 이슬람교의 한 분파(제18장 참고)

수니파(Sunni): 이슬람교의 한 분파(제18장 참고)

수라: 코란의 장

움마: 이슬람 세계 모든 이슬람교도(무슬림)의 공동체

미주

1. 예언자 이름을 언급할 때마다 이슬람교도(무슬림)는 “그분(들)에게(알라(Allah))의 평화가 깃들기를”이라고 말하며 알라(Allah)를 부른다(코란(Qur'an) 33:56, 37:181 참고).
2. 코란(Qur'an) 2:132, 136, 22:78
3. 믿음에 대한 강령은 코란(Qur'an) 2:3-4, 2:285, 4:136, 54:49 등 다양한 구절로 나타난다.
4. 코란(Qur'an)을 보면 우리의 행동이 신에 의해 미리 결정되지 않았음이 확실히 알 수 있다(예: 코란(Qur'an) 4:62, 10:44, 13:11, 18:29, 30:41 등).
5. 종교에 대한 강령은 코란(Qur'an) 2:3, 2:43, 2:183, 2:196, 3:97, 22:78 등 다양한 구절로 나타난다.
6. 타크와(Taqwa)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거나 보호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그 존재를 두려워하고 의식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은 자비 또는 정의를 구하는 노력, 즉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원동력이다.
7. 코란(Qur'an) 7:158, 21:107, 33:40, 34:28
8. 이 지도자 지위에 대한 제안은 메카의 고위 인사 중 한 명인 우바 빈 라비아(아부 수피안의 장인)이 했다.
9. 코란(Qur'an) 29:50-51
10. The Holy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by A. Yusuf Ali, The Islamic Foundation, London, 1975. 코란(Qur'an) 7:157에 대한 의견

11. 코란(Qur'an) 3:3, 4:47, 5:48, 15:9, 26:192-196, 76:23 등
12.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과의 관계는 코란(Qur'an) 1:2, 2:21-22, 2:257, 7:54, 50:21, 82:10-12, 18:50, 6:112, 12:5, 6:38, 2:164, 31:10, 36:71-73 등 다양한 구절로 나타난다.
13. 코란(Qur'an) 2:38-39, 2:81-82, 17:9-10 등
14. 코란(Qur'an) 3:137, 10:71-73; 11:25-49, 12: 1-113, 17:2-8, 71:1-28 등
15. 코란(Qur'an)에 나타난 산의 지질학적 개념, El-Naggar, 5쪽
16. 이 주제에 대한 기타 문헌: (1) Qur'an & Modern Sciences, Dr. Zakir Naik, (2) The Bible, The Qur'an and Science, Maurice Bucaille, (3) The Qur'an: Unchallengeable Miracle, Caner Taslaman, 번역: Ender Gurol
17. 코란(Qur'an) 2:34, 17:61
18. 코란(Qur'an) 14:44-46, 74:8-10, 80:33-46
19. 코란(Qur'an) 13:22-23, 36:55-56, 52:21
20. 코란(Qur'an) 5:48, 16:36, 10:47
21. 코란(Qur'an) 3:64-65; 3:98-100, 4:47 등
22. 코란(Qur'an) 2:75, 2:79, 2:146, 159, 174, 3:71, 4:46, 5:13, 5:15. 기독교 출신의 성서 학자들도 이 사실을 주장한다. 예: Bart D. Ehrman이 쓴 (1) 'Misquoting Jesus' 및 (2) 'Jesus Interrupted'

23. 코란(Qur'an) 5:48
24. 코란(Qur'an) 11:118-119
25. 코란(Qur'an) 3:59, 4:171, 5:75, 5:116-117, 19:30,
26. 성경(KJV)의 마태복음 24:36, 요한복음 5:30, 14:28, 17:3, 20:17, 사도행전 2:22. 이 주제에 대한 기타 무헌: <http://www.islam-guide.com/ch3-10-1.htm>, Dr. Lawrence Brown가 쓴 'The First and Final Testament'
27. 코란(Qur'an) 3:45, 4:171, 5:72, 19:30
28. 코란(Qur'an) 19:27-33, 3:49, 5:110
29. 코란(Qur'an) 5:110, 57:27
30. 예를 들어 성경(KJV) 마태복음 10:5-6과 15:22-26 등 모든 버전의 성경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평화를 가져왔다고 증언한다.
31. 과학자 중 무신론을 강력히 옹호하던 안토니우스 플뢰 경은 2004년 신에 대한 믿음을 공표하고 2007년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마음을 바꿨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32. 코란(Qur'an) 7:172, 30:30
33. 코란(Qur'an) 3:86, 10:9, 13:27, 17:97, 18:17, 48:4, 74:31
34. 코란(Qur'an) 17:70, 23:115, 29:2, 30:8
35. 과거 여성들이 겪은 불평등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 이슬람 이전의 아라비아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산 채로 매장했다. (2)

로마 문명은 여성을 노예로 여겼고, 그리스인들은 여성을 상품으로 여겼다. (3) 587년 프랑스는 여성이 인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4) 1850년 이전에 영국은 여성을 시민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여성은 1882년까지 개인권이 없었다. (5) 중국 문화권에서는 남자가 아내를 노예로 팔거나 산 채로 매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6) 힌두교인들은 여자를 죽음, 지옥, 독, 불보다 더 심한 고통의 원인으로 여겼다.

36. 코란(Qur'an) 2:190, 2:193, 2:217, 4:75, 8:39

37. 코란(Qur'an) 8:67-70. 8장과 9장(다른 장은 물론)은 주로 전쟁 상황, 전쟁 수행, 전쟁 휴전 관련 판결, 망명 신청자, 전쟁 전리품 관리, 전쟁 포로의 처리 등을 다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슬람교도(무슬림)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법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38. 노예 해방의 역사: http://en.wikipedia.org/wiki/Abolition_of_slavery_timeline

39. 코란(Qur'an) 10:99, 109:1-6 등

40. 참고문헌 VI, 183쪽

41. 참고문헌 VII, 4쪽

42. 참고문헌 VII, 4쪽

43. 참고문헌 VIII, 110-114쪽

44. 참고문헌 VIII, 116-118쪽

참고문헌

- I. The Holy Qur'an, Translation and Commentary, by A. Yusuf Ali, The Islamic Foundation, London, 1975.
- II. Towards Understanding The Qur'an, by Sayyid Abul A'la Maududi, The Islamic Foundation, London, 1992.
- III. Qur'an and Modern Sciences: Conflict or Conciliation? By Dr. Zakir Naik (2008), Islamic Research Foundation, Mumbai, India.
- IV. Ulum Al-Qur'an,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s of the Qur'an. By Ahmed Von Denfer, The Islamic Foundation, London, 1983
- V. Muhammad in the Hindu Scriptures. By Dr. Ved Prakash Upaddhay, Published by A.S. Noordeen, Malaysia, 2007
- VI. Tariq Ramadan, Radical Reform: Islamic Ethics and Libe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9.
- VII. Clinton Bennet, Muslims and Modernity: An Introduction to the Issues and Debates, Continuum, New York, 2005.
- VIII. Mehmet Ozalp, Islam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Barton Books, Australia, 2012.



“Ar-Rahmaan”, 자비로우신 알라(Allah). 알라(Allah)의 속성 중 하나

تعريف الإسلام باللغة الكورية

비매용

